朝鮮日報
夕刊
七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紙定期刊行物 朝鮮日報「光」(每月一回發行) 同「女性」(上同) 同「少年」(上同)

金鶴香油

我建艦計畫內容은 通報치안키로決定！

英米의通報要請에對하야 海軍首腦部協議結果

米內海相

【東京電話同盟】英米兩政府로부터 我建艦計畫의內容을 通告하여달라는 申込을受한 海軍省은 六日 日曜임에不拘코 山本次官、井上軍務局長等이 參集하야 申込成文을 愼重히 檢討하야 그取扱方法을 協議한結果 帝國海軍의 旣定方針에 何等變更의 餘地를 認定치안코 따라서 旣定計畫과將來의 建艦計畫內容에關하야 此等 어느나라에도 通告치안키에 意見이 一致되어 今後 外務當局과도 協議한後 通報期限인 來二十日까지 正式回答을 手交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海軍當局은 尨大한 我建艦計畫이라는 虛報에 基하야 此等各國의 軍擴工作은 極히 遺憾이라하고 五日手交된 英米兩國政府의 申込正文及帝國政府의 回答正文은 適當한 時期를보아 此를 中外에闡明하기로 決定하엿는데 我國의『軍擴行進』을 〃데마〃 宣傳上에導코잇는 各國의 態度와 我公正妥當한 自主的軍備의 實體와는 가장明白한 對象形態로서國民의眼前에 明示될터이다

日本軍擴의虛報를 英、米、佛이口實로乘勢

【東京電話同盟】英米兩國政府로부터보낸建艦內容通告要求는 日本政府의 一蹴을만나 이에英米兩國은 그未曾有의 尨大한海軍大擴張을『日本이建艦한다』는流言蜚語上에 建設치안흘수업는苦境에 到達하야그好戰的侵略的海軍擴張의 意圖이잇슴을 暴露하엿는데 英米의今日에 이르기까지의 海軍擴張準備工作은 全然完備하야 주르날·데·이탈리아紙 一片의 報道量全部와가티잇고『日本海軍은 四萬三千噸級의大主力艦을 建造中이다』하는 僞報의 宣傳을 世界에撒布하야 이에對한日本政府의反應을 그으히 待望하고잇섯스나 米內海相의 斷觀主義에 對하야 焦慮하든터에 倫敦을中心으로兩三 兩四 英米佛三國의 會談을開催할 萬全之策으로 日本政府의 公式保障을 求하려하야 突然要求를 하게된것이다 어리하야 只今帝國政府의正式保障을 어들수업는 以上 英米兩國은『日本政府가 正式保障을 하지아니하는以上 建艦의 意思가잇는것이다』라는 結論을 어더다하고 이를口實로 尨大한 軍擴의實施에 進出하게되엿는데 一國經濟의 總力量을 傾注할有史以來의 大軍擴을一片의虛報上에세우려함은 아마後世史家의우숨거리가될것이다 루스벨트는米國大統領이上下兩院에서 平和主義孤立主義議員으로부터 軍擴反對의猛攻擊을받고잇는事實도『僞報에 남뭐지아니하야도조라』하는 國民批判의 的確한 反證으로 觀測된다

米헐國務長官 軍縮熱意를披瀝

【華盛頓六日發同盟】米國政府의 尨大한 新建艦計畫이 一部平和主義者中立派議員側으로부터 猛烈한 非難을 받고잇는이때 헐國務長官은 經濟政策委員會主催下에 六日午後七時 라디오를通하야 全米國國民에對하야 軍縮達成에 關한 米國政府의 熱意를 闡明하야 左와가티述하엿다 米國政府는 軍備擴張에 邁進하는 現下世界의 情勢에對應하기爲하야 不得已陸海軍에亘하야 適切한國防을 確立하게되엿는데 一般的軍備制限또는 縮少를實現키爲하야 何時든지 他國政府와 協力할準備가잇다 所謂『隱遁國家』라고 稱할國家가 絕對的持久政策 確立을 目標로 國民을 窮乏의 苦痛에 陷케하고 또窮乏이 國際貿易을 阻害하고잇슴은 遺憾이다 今日의世界不況은 米國에도 一班의 責任이 잇스나 現在憂慘할만한 程度에達한 國際關係의 混亂은 主로 國際經濟戰의 結果에 基因한것이라할것이다 我等은 如斯한 情勢에 對處키爲하야 爲先國際法을復活하고이를 基礎로하야 國際秩序를 再建치안흐면 안된다 그第一着手로 互惠通商協定의 締結이야말로 感傷的 國際主義와 偏重的 孤立的主義와의 中途를 것는建設的이오 또現實的方策이라고 確信한다

日本에의照會는 委員會는不關係

【華盛頓六日發同盟】米國下院海軍委員會에서는 海軍作戰部長리ー提督을 招請하야·連日新建艦

나치스政變後 外交政策變化

獨逸의舊植民地 返還要求熾烈化？

日獨伊三國防共協定도强化 英썬데이타임스觀測

【倫敦六日發同盟】썬데이타임스紙는六日紙上에서 獨逸政變後에 올外交政策의 變化에關하야 如左히觀測하엿다
政變後에 豫想되는 獨逸外交政策의 變化로서注目되는點은
一、日獨伊三國防共協定의 强化
一、獨逸舊植民地返還要求의 熾烈化
일것이다 리벤트롭新外相은 以上의 二線에沿하야 노이라ー트前外相에 比하야 보다더큰熱意와 보다더强硬한態度로그 政策에 邁進할것이다 리벤트롭氏가 最近駐英大使의 職에 若干憂慮를 感하고잇는것은 숨길수업스나 氏는過去에 恒常나치스黨員內의 少壯派인同時에 英佛派의 接近可能性을 밋고잇는 人物이니만치 英佛兩國과의 關係에잇서서도 큰期待를 갓고잇다 (寫眞은 히틀러總統과 그心腹리벤트롭新外相)

植民地返還問題로 近近英獨間會談？

【伯林六日發同盟】伯林消息側의 觀測에依하면 獨逸의植民地 返還要求 問題에關하야 最近顯著히軟化한 英國政府는 結局이 二週間以內에 獨逸政府에 通牒을보내여 英國政府는 植民地問題에關하야 英獨兩國會談을 開始할意向이잇다고 通達하리라한다

獨內務方面도 大改革을斷行

【巴里六日發同盟】히틀러總統의 今回斷行한 拔行的大英斷은 全世界의耳目을 衝動시켯는데 六日佛國『아란』紙 伯林特派員報道에依하면 獨逸政府는 今回의 軍部外務兩方面의 改革만에 그치지안코 다시擴大하야 內務方面에도 着手할것으로보인다 卽 內務方面改革도 外務方面의改革同樣으로 나치스黨强化가 目的으로 樞密院을 設置하야 現內相부릭크博士를議長으로하고 부릭크博士後任에 親衛隊長히무라氏가 任命될것으로보인다

津浦線北上戰에 敵遺棄死體七千

負傷者推定數는 一萬六千名 中央軍도殲滅的打擊

【鳳陽에서六日 森原同盟特派員發】蔣介石은 我津浦線 北上作戰으로 今後의 抗日戰運命을決하는戰略이라하고 池河淮河의中間地帶에서 北上을 阻止하려고從來同地에 配備하고잇슨 第三十九師(馬玉群系)第三十四師(中央系)의三個師及 敎導總隊 學生隊等(傍系)第百三十一師、第百三十五師、第百三十八師(모도四川軍)第七十一師、第百七十二師(廣西軍)의七個師로 編成한 部隊外에새로蔣介石直系의 中央軍 第五十一師、第五十八師、第百六十九師의 約二萬을 急派하야 我軍을邀擊하야 頹勢를 一擧에 挽回하려하엿스나 我의卓越한 作戰指導와將兵의 神速果敢한 行動에依하야 遺棄死體七千、負傷推定一萬六千이라는 慘敗를보고 比較的最後까지 抵抗한 中央軍이 屢屢西南方地域에서 我兩角、倉林、田代三部隊에게 包圍되어 殲滅的打擊을 밧게된것은 蔣介石으로하여금 非常히失望케한모양이다

民族團結强調한 四年前論文發表

蔣의國內相剋緩和策

【上海六日發同盟】北支、中支의 連續的敗戰에 支那軍前線將士는 모두 意氣阻喪하야 長期抵抗의 叫聲은 벌서氣力업게된 實情에 鑑하야 蔣介石은 요전韓復榘를 筆頭로 指揮官을 嚴罰에處한外에自身 戰線을 馳驅하면서 前線將士의 士氣鼓舞에 努力하고잇는데 五日에『外侮의暴戾과民族復興』이라題한論文을 發表하야 軍人의奮起와 國內團結을促進하고잇다 右論文은 蔣介石이 四年前의 一九三四年七月 廬山의 靑年將校의 訓練을爲하야한 演說이 今日까지 發表禁止로되여잇든것으로그內容이 今日의時局에適合하다는 理由로 今回發表된것이다
一、全國民은 團結하야國力을强化하고民族을 復興케하라
一、國民의 意思를統一하고力量을集中하야 精神으로써 物資와싸호고 智力으로써 武力을 이기지안흐면안된다
一、我民族을 脅迫하는 外侮에對하야 三民主義로서抵抗하라
等을 强調하고『列國에 比하야目前의 準備가업는 中國으로서는 어듸까지든지 自暴自棄에陷하지안코 民族復興의 氣魄을把持하라』고說하엿다 그리고 前線의 戰意喪失에 加하야漢口大本營部內의 共產系分子의 進出에 伴하야 國民黨系와 共產系의確執은 漸次 深刻하게되엿스므로 이사이에 處하야 蔣介石이 國內 團結力을 集中의 要로간으로써 部內의 統制維持에 奔走하고잇고 또 四年前의 論文을 今日에 發表하게된것도 這間의 事情을 말하는것인데 前線에나 大本營에도 次第로崩潰하여가는內部의拮抗을보고 蔣介石도唐慌의비치잇다고한다 (寫眞은 蔣介石)

四川省暴動化 成都에戒嚴令

【天津七日發同盟】支那情報에依하면 廣東『쿠데타』의 餘燼이 아직 꺼지지아니하엿는데 또內部的紛爭은 國民政府最後의 地盤인四川에 波及되야 成都에서 戒嚴令이 頒布되고 形勢가 險惡하게되엿다

龍口占領

【龍口六日發同盟】六日午前八時에 黃縣을進發한 我快速部隊는同十時十五分에 黃縣西方龍口를占領하엿다 皇軍의龍口入城은 大正三年 日獨戰爭時에 我部隊가同地에 上陸한以來 二十四年만이다 同地는 萊州灣에臨한 唯一의港口로 渤海漁業의 本據로 알리여젓고 人口는 五萬이다 約百名의 在留邦人과 領事館出張所는 事變發生과同時에 撤退하엿스나 邦人居宅 遺留財產은거이完全히 남아잇는模樣이오 또龍口南方 招遠東方邦人經營의 玲瓏金鑛도 實狀은未詳하나 外觀은完全하다고한다

地中海警備 空中으로監視？

【巴里六日發同盟】英政府는 最近地中海에서 不詳事件이頻發함에 鑑하야 潛水艦의 監視强化를實施하기로 되엿는데 또이 監視를 海上에만限하지안코 空中에擴大하야 飛行機에 對하야도 潛水艦과 同樣의 監視를 行하기로考慮中이라한다 右에關하야 英政府는 벌써 佛國政府에 接近하야 協議를開始한 模樣인데 地中海에는 多數의 商業航空路가 交叉하야잇는 現狀에鑑하야 一旦 商業機가 不法行動을 한境遇 그識別에 困難을感하리라한다

獨逸도積極的 征服進軍開始？

【伯林六日發同盟】獨逸軍、政兩方面의 突發的大改革은 行한히틀러總統은 政變이 一段落을지은 六日에 벌써伯林을 撤退하야 베르히데스가든의 別莊에向하엿다 一方 폰·리벤트롭新外相과 急速히 任地로부터 歸還한 폰·파ー펜前駐墺大使는 同地에 向하엿다한다 同處에서此等首腦部가 무슨일인지 協議하리라고 傳하는데 右報道에對하야 伯林官邊에서는『무어인지 대단한일이 이러날것이다』라는 想下에 벌써 警戒하고잇다 AP

伯林支局으로六日 獨逸外交의 今後의動向에對하야 次와가티 觀測을傳하고잇다
今回의政變을契機로 獨逸外交의眞正한決定은 目下 全然相反한二條의觀測이 되어잇다 卽
一、히틀러總統은 伊太利의 에디오피아征服 日本의對支行動에模倣하야 獨逸의積極的征服進軍의開始를 計畫中이다
一、今次政變의結果 獨逸政府는 植民地回復의機會를 엇기爲하야 英佛兩國에 接近할것이다
따라서 今次의政變은 羅馬伯林樞軸弱化의第一步이다 以上의觀測에對하야獨逸政府의 代辯者는 이를全然一笑에부치고 獨逸外交政策의 不變을强調하고잇다 그리고 히틀러總統이 이렇게 리벤트롭新外相의 協力에依하야 英佛兩國과의 接近工作을 再開하리라는希望은 各方面으로부터 期待된다 外交界方面에서는 히틀러總統의 그간은政策은 決코 못솔리니首相을 背反하는것은아니오 또英國의對獨接近도 佛國을排斥하는것은아니라고 觀測하고잇다 佛伊兩國間의 親善關係의 崩壞

時事解說

英米의建艦 通報要求

一九三六年 倫敦서 第二次로 열리엇든 海軍會議에 잇서 英米가 合勢하야 帝國側의 主張을 抑制하려 함으로 帝國은 드디어 그 會議로부터 脫退한 것이어니와 그以後 英米佛을 中心으로 해서 海軍協定을 體結하고 또 그 以後 英國은 獨逸과 個別的 海軍協定을 締結하야 前日 華府條約을 대신한 條約에 比해서는 條約의 內容은 規定하는 바가 一層의 海軍條約이 成立된 셈이엇다。

그條約의 內容을 頗略히 紹介하자면 第一部에 잇서서는 條約國에 着手하기 四個月前 各其 建艦할것과 第一部及其 以上의 軍艦에 對하야 여러가지의 必要한 項目도 各其 通報할것을 規定하엿고 第二部에 잇서서는 各種艦船과 艦齡의 限度를 規定하엿다。

第三部에 잇서서는 前日伊太利와 條約國團三國이 協議하야 特別히 이 條約에 調印하지 안코 三部에 잇서서는 셋재 事故에 依하야 艦船에 關한 限界를 突破할 수 잇는 것 等이라고 그 條約의 效力이 停止되나 再開한다는 것, 셋재 事情이 發生하면 條約에 依한 國防上 安全이 脅威될 때에는 互相 通報하야 商議를 遂行할 數것, 넷재 非締約國의 이 條約에 規定된 制限을 超過할 때에도 역시 互相의 通報로써 商議를 遂行한다는것 等이다。

今番 帝國政府에 對하야 上記條約의 規定을 超過하는 艦船을 建造하는 風說이 잇다고 第三部에 對한 第二十五條에 依하야 項目 (그 條文으로 第四條 第二十五條)을 이 條約에 參加하지 안흔 帝國에 對하야 通報를 要求한것은 아니로되 英米佛三國은 此條約을 締結하는 것을 앞두고 帝國의 態度에 警戒를 하기 때문에 英米外務兩當局에서는 다 이러한 措置를 決定하엿다는바이니 上記條約의 政府의 態度가 警戒 할 날이되는지 情勢推移中이라고한다。

蘇는依然愼重

對日作戰說은全혀 某國의日蘇攪亂策

【莫斯科六日發同盟】支那事變의 進展에따라 蘇聯政府의 對支積極態度가 頻繁히傳하는데 크레물린側의態度는 依然히 어디까지든지 愼重을期하고잇고 最近外國에잇서서의 各種宣傳에呼應하야 莫斯科에도 赤軍極東增派說이라든가 對日作戰決意라든가는 主로第三國側에서 流布되엿다 그러나 이는事實과틀리고 蘇聯이 支那特使 孫科에게不渡手形을振出한 氣色을[illegible]하고 某國이 日蘇兩國의 國交에波瀾을 줄目的으로 策動하고잇다는것이 消息通의觀測이다 (寫眞은 스탈린氏)

나 獨逸의今次의政變을契機로 英佛伊四國間의接近을 圖하는 英國의 意圖가 아직은全然 實現되지아니하는 솔리니首相도 크게 歡迎하고잇는것은 充分히豫期되는바이다

赤軍將校 一千二百名銃殺？

獨週刊誌暴露

【伯林五日發同盟】獨逸의 週刊軍事雜誌 리데르·보헨블랏트는 四日의 紙上에 蘇聯邦最近의軍事地位에關하야 左와가튼 暴露的記事를揭載하엿다 莫斯科에서온 信憑할만한情報에依하면 昨年五月에 토하체프스키事件을 爲始하야 昨年末까지에 銃殺된 赤軍將校는 約一千二百名의 多數에達하야 最近에는 卽해 新將校의 補充任命을하고잇는데 이事實이야말로 赤軍部內의 將校와 首腦部의不足을 暴露한것으로 蘇聯政府의 統計를보아도 明白함과가티 國防工業과 軍需工業兩人民委員部의新設에不拘하고 蘇聯政府의 再軍備는 遲遲不進하야 昨年으로써終了한 軍事計畫의 實績은 그當初豫定分의 五十퍼센트의成績을나타내디不過하고 或은 그以下인지도모른다 蘇聯政府는 또一九三八年부터 一九四○年에이르는 新軍擴三個年計畫을開始하엿스나 昨年으로써 終了한 軍事計畫이 空軍의將來를目的함에對하야 新計畫에는海軍擴張에 重點을 두리라觀測된다

伊藤警務課長

平安北道視察談

總督府警務課長 伊藤泰吉氏는 一月二十二日 京城을 出發하야 嚴寒과싸호면서 第一線을 警備하는 警察官에對한 警務局의慰問使로 平北道管內를 視察中이든바 昨六日午後에 歸任하엿는데 左와가티 말하다
今回의慰問은 江界를 出發하야 東으로 나아가 鴨綠江上 一帶의 第一線 警察官駐在所를 訪問하고 마침 嚴寒과 鬪爭을 무릅쓰고 二個所의 第一線의 在所에 宿泊하야 第一線의 苦心을맛보고왓는데 警察官은 勿論이오 그家族도 非常한元氣로 默默히奉公하고잇는狀況으로 써침으로國境線의 旅行을繼續하여와다 對岸의情勢는 滿洲國의大討伐이奏效하야 近年에업는平穩狀態에잇는데 不拘하고 모두緊張하야잇고 特히雪寒그他의討伐에對하야는 눈물겨운것이잇다 現今對岸의情勢는 平穩을繼續하고잇스나 今後 共產匪가 蠢動할念慮가 多分잇고 特히 鴨綠江水電工事進捗에 伴하야 消防署管內의 下流一帶는 地勢上에도大變化가생겨 共匪의目標가될 念慮가잇스므로 이地方의 國境警備에對하야는 再檢討할必要가잇다고생각한다 道當局에서도 研究中인模樣이나 警務局으로도 이에對한 對策을 考究치안흐면 안되리라고생각한다 國境警備의陣容은 大體로 防備時代로부터 積極的討伐時代를 經由하야 今日은 鮮滿一如의 大方針에依하야 對岸과의 連絡이 緊密하게되어 關東軍、滿洲國警察과 朝鮮側連絡도 極히 圓滑하게進行되야 我等이現地를보드라도 一見하야 好印象을받는 事實이만하 非常히 든든하게생각되엿다 國境地方에는 想像以上이여서·各地에自警團을組織하고 眞正으로 警察官의手足이되야 일하여주는 것은 感謝할밧게업다 또國境地方民의理解는 想像以上이여서 이點에 留意하야 今後 이設備를 充分히 考慮치 안흐면 안되리라생각하엿다

八面錄

◇延專校長 半年만에 新聞物을가지고 歸京。
◇日 延專、世專에는 合二十五萬圓의 寄附를 밧기로 되엿고。
◇日、北長老敎系學校의 引退는決定的 事實이나 土地、建物等의 賣渡、讓與等 不許는 이것을 팔어 外國에 된지라는 意圖가아니라 後日 다른方法으로 朝鮮人事業에 쓸意思라고。
◇日 朝鮮事情은 朝鮮에잇슨
◇宣敎會、實行委員會、스레金會等이 잘 알데니 거기 意思에조차 하라고。
◇말인만정 고마운 말 더욱 延專、世專의 設置機尤은 기떼할밖에。
◇그러나 結局 長老敎系學校는 引退케되니 섭섭한 일。
◇市內에 流感、猖獗、某實校에는 八、九十名의 缺席。
◇歐洲大戰時에는 西班牙感冒가 流行더니 支那事變時에는 支那感冒가 도는가。
◇家庭、學校、當局의 注意할點。

人事·集會

▲石塚峻氏(朝鮮米穀倉庫株式會社社長)新任人事次七日來社
▲三井榮長氏(朝鮮產業協會會長)新任人事次七日來社
▲山本東雄氏(朝鮮產業協會專務理事)同上
▲時局研究會에서는 九日午後四時銀行集會所에 例會를開催하고 當面의時局問題에對하야懇談할豫定

今 新興からし 소면·우동 두부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밀국수·우동 두부 其他여러가지반찬의 고초가루
今 新興 華椒粉 고초가루
京城 今山商店 阿部本店 辻本商店 吉川商店 桑田商店 江口商店 山七商會 重枝商店 小野本店 中村商店 德元商店 日興物產株式會社
今 類似品이 만히 잇사오니 商標에 注意하시오
月美人印 カレーからし コショ 製造本舖

食料紅 オブラード バター 製菓材料 菓實香料 商標登錄
大阪市西淀川區大仁本町二 西本商店

ハーモニカ 軍隊ラッパ 樂隊太鼓 蓄音器 卸問屋
大阪市西區新町南通四ノ六 吉川樂器店 電話新町參二九四番
(同業者に限り型錄進呈郵券三錢要)

婦人子供服用 ボタン バックル
品質優良·柄行嶄新 郵券五十錢要ス·冬物新見本進呈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 中川釦店 電話東(五)一二二一番 振替大阪三五六二三番

錢入 袋物現金問屋
大阪市東區博勞町一ノ二六 株式會社 廣島屋本店

春夏向 ワイシャツ カッター
品質優良·柄行嶄新 絕對安價提供！ 申込次第柄見本營業案內進呈 シャツ·カッター附屬雜貨
製造卸 大阪市南區順慶町四丁目八三 野井集商店

ヤッケヌレホヌスコロピスヌ·釦ノトレスヌ服
斯界の覇王 ライオン印作業服 他品ノ五倍使用出來マス
輕快便利 危險防止 能率增進 堅牢無比
라이온商標에注意 입어서야 튼튼한줄을안다 입어보다 튼튼한 라이온服
●贈り生地及嶄新縞柄種在庫 ●カタログ生地見本御申越次第送呈
大阪市東區川西町五五壹
製造元 本城眞玄商店 電話

バーゲン オール揃 現金問屋
冬物品揃!!! 商報進呈(捺押印書店) 御來阪時에來店希望 御通信は日本文の事
大阪市東區島町壹丁目十二 圓山商店 振替大阪57429

南鮮巡廻公演		
二月十日	水原	
十一日	淸州	
十三日	鳥致院	
十四日	大田	
十五日	江景	
十六日	裡里	
十七日	群山	
廿一日	全州	
廿二日	井邑	
廿三日	木浦	
廿四日	榮山浦	
廿五日	光州	
廿七日	潭陽	
廿八日	寶城	
三月一日	筏橋	
二日	順天	
三日	麗水	
(以下追後發表)		

出演人員 高福壽 李銀波 南仁樹 李蘭影 金貞九 金貞淑 宋達協 張世貞 孫一平 金綾子 安顧册 趙美淑 孫牧人 朴星春 外二十人

オーケー一大演奏会 OKeh

間島、表滿洲移民 鐵道局輸送待機

二十日부터臨時列車를運轉 萬四千名大量輸送

총독부의계획이민 일만사천여명은 간도성(間島省)에 일만일천이백칠십일명과 표만주(表滿洲)방면에 삼천삼백여명을 보내기로되엿는데 철도국에서는 그동안에 그들을수송할 림시렬차를 준비중이든바 요지음에 드디어 완비되엿스므로 오는이십일부터 약한달동안전조선에 림시렬차열 아홉개를 내여서 실어보내기로 되엿다한다

각지에서 모집한 이민수효와 이주지(移住地)는 다음과갓다한다

◀경기도로부터 간도성(間島省)에 일백사십오호칠백삼십칠명 ◀충청북도로부터 간도성에이백삼십호일천이백사십일명 ◀충청남도로부터 간도성에이백삼십호일천일백삼십이명 ◀전라북도로부터 간도성에칠백삼십칠호 ◀전라남도로부터 통화성(通化省)에 유백십호두삼천십일명 ◀경상북도로부터 간도성에사백오호로 이천사백육십명 ◀경상남도로부터 간도성에삼백유십호로 일천팔백이명 ◀강원도로부터 길림성(吉林省)에 일천이백구십육호로 일천이백구십여명이다

朔州、訓戎兩地에 國境鐵橋를架設

八日에雙方覺書交換

남총독의 선만일여정책은 시국의 진전과함께 더욱강화되어 사변이래 내면적으로 이것의구현(具現)에 관하야 상당히 각방면에 걸처 조선만주량당국간에 예의절충중이든바 이번사변이래 제일착으로 압록강 두만강에 각각한개의 철교를 실현케하기로되엿다 압록강、두만강두강을 건느는조선、만주교통로는 안봉선(安奉線) 경도선(京圖線)과 만포진(滿浦鎭)즙안현(輯安縣)간의 세철교를 비롯하야 작년일월에 정식조인을 만친 일만국경하천가교각서에따러 소화십륙년까지에 십사개소의 교량이가설키로되어 이미 사개소는 준공 또는공사를 진행하는중인데 이상의 교통망과함께 신교통로의 하나는 평북 삭주(朔州)와 대안 마자구(麻子溝)를련결하고다른하나는 함북훈융(訓戎)으로부터 대안구만자(鑛子)에 건느는이대철교를 가설하는것으로이미조선 만주량당국은 물론 가치운장래에잇서서 이두철교를 건너서 조선만주두지방에 비장된 개발과 개보고(寶庫)를 개척하려고하는 사설철도를 목표로 한는투자가의 왕행도 완전히성립된결과 드디어 총독부정무총감과 만주국교통부 대신과의사이에 「사설철도교량의가설에관한각서」의 정식조인을 교환케되어 어만주국 교통부대신은 팔일오후세시 신경에서 조인키로 결정하고 계속하야 동국외교부계가 판은 이각서를 휴행하야 총독부를방문하야 대야정무총감의조인을구할터이다 그러데 대야정무총감은 방금의회출석중임으로다시이조인각서를동경으로가지고가게될터인데이에 선만교통사상에획시기적이대철도교가설의기초가 구더지게되엿다

城北町 强盜未遂 犯人은前傭人

東大門署서逮捕取調中

나흔날새벽 성북정(城北町)일백칠십칠번지사는 전북이리 (裡里) 부호김화형(金化炯)(三七)씨의집에담을 넘어드러가 김씨가 고잇는방에 들어가 흉기를가지고 얼을을싸고 단도강도짓으로 협박하고 돈을내라고 하다가 주인이떠드는 바람에 빈손으로중적을감추어버린 강도미수 사건은 소관동대문서에서 그범행수법이 그집내정을 잘아는자의 짓이라고단정하고 내사를한결과 동정백팔십팔번지에서 살며 "하수압이 망고군"노릇을 하는 김봉순(金奉順)(二一)을 진범인으로단정하고 엿세날오후여섯시 동서형사대가 그집을 습격하야 손쉽게잡엇는데 취조에대하야 범

나믇치위에떠는빨래

阿片빠는妓生의 末路는이러하다

舊惡發露、遂警察에

동모장신구훔처팔어먹다

동무들 울리는 기생이 종로서에 잡혓다——지난달 삼십일오후 세시반쯤되어 부내청진정(淸進町)배오십륙번지의사호기생송명옥(宋明玉)(二七)의 집에놀러왓든 관철정(貫鐵町)배이십팔번지의일호 조로권번기생 명장김만수(金萬洙)(二一)는 동무가뒷간사이에 시계와반지 네개와 장석반지를 훔처내고 밤에 명월관에가잇는 동무에게 멘센자-를 보내여 사고편지를 보내뒤 다섯달에는 밤에 덜시경에는 락원정(樂園町)이백팔십삼번지의 이십륙호 리순업(李順業)(三七)이가 천향원(天香園)사무실에다 거러노흔 시까오-바 백원짜리 여우목도리를 가지고 달아나다가 훔처내여 그길로 자동차를타고 경성대총(大塚)전당포에 오십원에잡힌 구엇이릴로되며 일에날새벽 집에서자고잇다가 종로서원에게 잡혓는데 자기버리도 상당한대 불구하고 손버릇이 나쁘리면에는 아편마에 미친것이판명되엿다

(사진은 김만수)

奢侈하는下女 알고보니窃盜

시내 한강통(漢江通)이정목삼십륙번지 주정(酒井)호이방에잇는 하녀 리순분(李順粉)(二三)은 작년십일월부터 주정(酒井)의집에 하녀로와잇든동 이래 신분에 맞지안흔화스러운옷과 팔목시계등귀금속으로 장식하는것을 주인이 의심스러히생각하고이월 초순경에 리순분(李順粉)의 소지품을 검사한결과 현금오십원과 그외에 귀중품등이 들어잇는것을 발견하고 곳소관동산서에 신고하여왓슴으로 인치하고 취조한결과 주인주정(酒井)의집 금궤속에서 돈을 수차훔처내여 이래 호화스러운 몸치장을하여내려왓다는 것을 자백하엿다한다

皇國臣民體操

內地에도普及

총독부의학무국(學務局)의 제정이되는 황국신민체조는 내지각방면에 대단히호평을주어 동상중의 염원(鹽原)의국장하에 집무이 살로하는모양으로 화무국에서는 얼마전 체조의도해(圖解)배부를 각방면으로 요구하엿다 도입할보건체조로부터는 황

그집에서 발견하야 사건은판정을리히에되엿다 어자는정씨와가튼고향사람으로 수년전그집에서고용사리를하엿는데 사리갈이 궁하야 강도를 결심하고 흉폭이판한 주인집을 처엉하엿든것이다

水色에操車場

用地買收、今春부터着工

철도국에서는 소화십이년도로부터 오개년계획사업으로 대구(大邱)대전(大田)원산(元山)평양(平壤)경성(京城)다섯곳에 조차장(操車場)을 설치하기로되엿는데 경성에는 수색역(水色驛)부근에그 용지(用地)를 매수하엿고 평양에도 용지를매수하엿스므로 오는사월부터 드듸여 공사에착수하기로되엿다한다

국산미재조의 내지(內地)부당 을올리여주기를 청하여왓슴으로 만일국에서도 이것을 폐지안코 보내여 내지에잇서 일부의 동하야 얼지안어 도해와함께 보내기로되엿다

車殷淵氏美擧

부내 아현정(阿峴町)오백십오번지 차은연(車殷淵)씨는 지난 구년간에 아현정과 북아현정의 세궁민팔백이십호에 백미오승식을 정회(町會)의손을 거처나노아 하주엇는데 동내에서는 차씨의 아름다운뜻에 감격하야 그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搜索願兩通

시내 삼청정(三淸町)일백이번지 미곡상 리종인(李鍾仁)의장남만휘(萬輝)(一三)는 이월사일아침열한시경에 화천정(和泉町)대동정미소(大同精米所)에 잠간다녀오겟다고나간후에 지금까지돌어오지안음으로 차저달라고 시내각서에 수색원을제출하여왓다

◇시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일백칠십번지 박경순(朴京順)방에잇든 박기동(朴基同)(一四)은원래정신병자로 집안사람이 감시하여오든중 이월칠일오후세시경에 감시의틈을 피하여 어데론지 도망하엿슴으로 차저달라고 시내각서에 수색원을제출하여왓다

"물고덤비는안해"

京城地方法院에離婚訴兩件

안해가 흉대하여 가디살수업스니 리혼하게하여달라는출장부두명이잇다 부내화동정(花洞町)일백사십팔번지윤명원(尹明源)은 그의안해리용완(李用完)을 상대로 칠일경성지방법원에 리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엿는데 소장을보면 괴고인 그안해는 성질이 포악하야 자기를 항상의 대할뿐만아니라 개자식이라고 욕설을하고 심지어 덤벼때리려고하고 시부모의말을 전연듯지안흐니 리혼하여달라는것이며 부내려지정(禮智町)일백팔십구번지 리호달(李鎬達)도 칠일경성지방법원에 그의안해 김유선(金有仙)을 상대로 리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엿는데 이것도 그의안해가 몹시포악하야 자기를 물고때리고하며 친정식구를끌고와서 자기를갈금하고 죽인다고까지 위협도하니 리혼을시켜달라는것이다

아이를밴사나이

京畿道驪州에사는머슴의"身上變異"

醫學上珍奇한話題

일에날 경기도 위생과에는려주서(驪州署)로부터 "아해를밴사나이"라는 진기한보고가드러왓다 려주군강천면 도전리(陶田里)백사십륙번지 농업윤재득(尹在得)의 머슴리성(李成)龍(二五)은세상에 나올때부터불임업는사나이인줄만믿고 호적에도남자의 생식기까지 뚜렷하게잇서부모는물론 자기자신까지 남자인줄만 밋고잇섯는바 작년구월부터 여성으로서의"월경"이 생기기시작하야 흉문으로부터한달에한번 약닷세동안식 흘사히월경가튼것이 흘느자 갑작히음성이차차로녀자의 목소리로 변하야갈뿐아니라 남성이 그리게되든바십이월부터는 피도보히지안을뿐아니라 요사히와서는 완전히 녀자가임신하엿을때 증후(症候)를 나타내여 식욕이부진하며 몸전체가 녀성적으로 변하야감으로 부근의사에게 진찰한결과 임신하엿다는것임으로 지금은 이때까지입고 지내든남장을벗어버리고 녀자의 차림차리를 하엿을뿐아니라 집에들어안저 밭도짓고 빨래도하고잇서 동리사람들에게 큰화제를제공하고잇는데 지금적정되는것은 흥문밧게업슴으로 아해를 어되로 낫느냐가문제이며 만일 아해까지나아 여성으로확정된다면 호적중정도 흥미를끄는 문제가될것이라고한다

城大產婦人科

金錫煥氏談

여기에 대하야 성대산부인과 연구실에잇는 김석환(金錫煥)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한사람이 남자의 생식기와여자의생식기를 한데가지고 잇는것은 형태학(形態學)적으로 반음양(半陰陽)이라고하는것인데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다가치 생식할하는것이라면 진성(眞性)으로 이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그중하쪽이도판한다면 이것은가성(假性)으로 지금례로만일남자의 생식기가 정적일학되고 임신을하엿다면 흉문이라는것은 사실은 흉문이아니고 음문일것입니다 좌우간 이러케는 극히드문것으로 실지로보지안코는 어느쪽이라고단언할수업습니다

妙齡女性까지끼인 紳士賭博團摘發

龍山署에서一網捕盡

시내 한강통에서 묘령의부녀자까지 가담한 신사도박단 칠명을 잡아다가 취조하엿다 이월륙일 오후팔시경에 용산서원이 한강통(漢江通)에 잇는 삼정목 유서사번지 홍순두(洪弘)중류가정에서 화투를가지고 도박을하는것을 발견하고 곳 일망타진 하엿다는데 이자들은도 상당한재산도 잇는 사람들이라고 하며그중에는 묘령의부녀자까지 석겨잇서도박단 이라고하야 체포된일단의 성명은아래와갓다

湯淺及建築業 漢江通三丁目七三 鈴木商市(三八)
元町一丁目一三 無職(女) 横野가요(二七)
漢江通一丁目五四 建具屋 橋口淸吉(三一)
大島町二七 建具屋 猪熊幸吉(三一)
榮町三〇 左官業 樋村米藏(三七)
漢江通三丁目二六 古物商 加藤留勇(三八)
漢江通三丁目六四 土木請負業 弘中豊吉(二六)

紊亂한學生風紀

西署에서管下에肅正工作

요사이 중등기학교학생들이 정복정모를 가춘채 상점생도들이 극장출입또는 유자미끽지못한 행동을 하는한편 『빠』『카페』등에 자주출입을하야 난이 흔함으로 부내서대문서에서는 학생의 풍기를 숙청하는한편 엄격히 빼지러는의생을 미리 방지하기위하야 이사일전부터 관내각음식점장 차집 당구장(撞球場)등을일제조사하엿는바 부내옥천정(玉川町)에서는 옥천식당(玉川食堂)에서는 오일밤부내 모실업학교생도세명과 모고등보통학교생도두명이 대가이영등실대로 술을마시 선대이 녀급등을상대로 술을마시며대기영을하야가고 또 죽첨정(竹添町)일정목 자연장(紫煙莊)에는 모중학교생도다섯명이 술을마시고 뭉들필리며 밤에를 날생었어하고 잇다가 극장에 어생여명이 연극구경을 하고잇슴으로 그들을 그서에까지 데려다가 엄중설유를 하는한편 학부형과 학교책임자를 불러다가엄중설유하야 풍기를 바르게 하도록 지시하엿는데 이후에도 가급적 일제검색을하야 학생은 단연엄벌할터이라한다

農村經濟更生施設 各團體에의補助金

소화십삼년도 농촌경제갱생시설비(農村經濟更生施設費)예산중 만오천원에 대한국고보조액은 십오만칠천팔백원으로 대체작년도와 동액으로보조는 증견청년 단체에 대하여 칠만팔천원인데 금년도에 강습회보조(會補助)를 하기로하엿는데 관계 자에게 보조할 것 보조금 분배의 결정은 다음과 가다

◇金額(道別補助額)

京畿 一萬六千三百五十 忠北 七千 忠南 一萬六千九百 全北 一萬三千 全南 二萬九千八百 慶北 二萬三千八百 慶南 一萬七千 黃海 一萬四千 平南 一萬 平北 一萬八百 江原 一萬二千 咸南 一萬 咸北 九千 合計 一五萬七千

靑訓制度를 倂行擴充實施

志願兵制度實施에關하야

總督府軍部兩方協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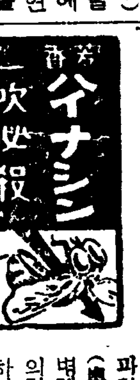
조선에잇는 청년훈련소의 확충에관하야 총독부와 군부와의 협의회의는 작롭에 조선호텔에서 이십사일 길전(吉田)대좌 판본(坂本)대좌 암기(岩崎)참모와총독부측으로부터 김(金)사회교육과장 서강(西岡)지방과장 오촌(奧村)학무과장등이 출석한후 지원병제도의 실시와 병행하야 금후의청훈제도(靑訓制度)확충에 대하야 신중협의한결과 그근본방침에관하야

一、이때에 국가적견지에서보아 적극적으로 청훈제도를 장려확충할것

二、청훈제도의 장려와확충에당하야는 종래의 일반관념으로되어잇든 병역법(兵役法)에의한 재영년한(在營年限)의 단축의은전과 단순한군사교련을 시행한다는 오유를 일소하기로하고 어데까지든지 국민소질의향상을 기도하고 청소년기에잇는 교육기관임을 반도민중에 리해、게발함에 노력할것

一、조선에잇서서의 청훈제도의 지도확충은 내지의 청년학교를 모방치안코 어데까지든지 조선의 실정에응하는 리상적 시설이되게할것

등을 협의하얏다



제실구사단 아부(阿部)대좌

同德主催女子卓球에 好壽敦崔福淳孃連覇

二位는開城貞和의許嬢

동덕여고보주최의 제二회전조선녀자중등학교녀자탁구대회는 六일오전十시부터 창신정동교탁구실에서 挙行하얏는바 경기개시전에 참가한五개교대표廿一명의 入場式이잇서 황국신민의서사를 제송하고 國歌合唱에뒤이어 優勝旗返還이잇섯스며 大會長趙東植씨의 告辭가잇섯고 選手一同을代表하야 昨年優勝者 崔福淳(好壽敦)孃의 宣誓가잇슨다음 審判 朴在敏씨의 競技에對한注意가 잇나자 競技의幕이열리엇다 이날出場選手中에는 技術에잇서서 中等級을 凌駕할만한 名選手들도잇서서 女子卓球界의압날을위하야 크게氣焰을吐하엿다 이리하야 最後決勝戰에는 昨年의優勝者 崔福淳孃(好壽敦四學年)과 第二位를 차지하엿든 許鎭鎬孃(開城貞和五學年)이 또다시 對時하야 接戰끄테崔孃이 連二年優勝하엿다

【第一回戰】
崔福淳(好壽)3…1金淑中(同德)
洪鎭禮(貞和)3…0鄭壬順(和光)
鄭英喜(同德)3…0崔貞林(好壽)
金福義(同德)3…0朴玉熙(貞和)
金成妊(好壽)3…0李鐘吉(和光)

【第二回戰】
崔福淳(好壽)…棄徐點禮(阿峴)
李丁浩(好壽)3…0洪鎭禮(貞和)
鄭英喜(同德)3…1孫今福(貞和)
愼言蓮(同德)3…1田照玉(和光)
金福義(同德)3…1韓興福(好壽)
朴祥玉(好壽)3…0鄭菊顯(和光)
金成妊(好壽)…棄金周任(阿峴)
許鎭鎬(貞和)3…0孟玉順(同德)

【準準決勝】
崔福淳(好壽)3…0李丁浩(好壽)
鄭英喜(同德)…棄愼言蓮(同德)
金福義(同德)3…0朴祥玉(好壽)
許鎭鎬(貞和)3…2金成妊(好壽)

【準決勝】
崔福淳(好壽)3…0鄭英喜(同德)
許鎭鎬(貞和)3…2金福義(同德)

【決勝】
崔福淳(好壽)3…1許鎭鎬(貞和)

(寫眞은 左로부터崔福淳 許鎭鎬 金福義 鄭英喜諸孃)

日本陸上聯盟 今年度日程表

日本陸上競技聯盟에서는 立案中에잇든 今年度의 競技會日程을 四日에다음과가티 發表하엿는데 第十二回國際對抗競技開催에關하야서는 이미 獨逸體育長官『잔마-·오스텐』氏로부터 親和의 回答이잇서 其實現은困難視되어잇스나 日本陸聯으로써는 이에鑑하지안코 目下獨逸大使館을通하야 다시獨逸陸聯과 交涉을 거듭하는一方으로 國際陸聯巴里總會에 出席하는 陸聯代表木下東作博士로하여금 同總會終了後 獨陸聯과再次交涉하도록 委囑하야 實現을 期하고잇는바 이것이 成立되는날에는 다음과가티 對獨競技日本代表選手豫選을 今年度의 全日本選手權大會(甲子園)와 兼行하야 日獨對抗을 十月上旬東京에서 開催할 豫定이라한다

▲五月一日＝關東인러-미-늘 ▲二日＝早大對慶大 ▲六月四、五日＝關東인러-카레지(以上神宮競技場) ▲六月十八日＝東京마라손(神宮코-스) ▲七月九、十日＝東京選手權大會 ▲七月廿三、四日＝全日本高校對抗 ▲七月卅、卅一日＝關東選手權兼日本選手權豫選(以上神宮競技場) ▲八月上旬＝全日本 인러-미-틀(甲子園) ▲八月十三、四日＝全日本女子選手權大會(名古屋) ▲八月廿七、八日＝全日本選手權兼日獨對抗豫選會(甲子園) ▲九月廿四日＝關東女子中等對抗(名古屋) ▲十月上旬＝日獨對抗競技(神宮競技場) ▲十一月三日＝關東府縣青年對抗(神宮) 今年度初擧行 ▲十一月五日＝關東中等府縣對抗(芝公園)今年度初擧行

比律賓遠征갓든 强拳金明錫凱旋

朝鮮拳鬪俱樂部所屬 金明錫君은 比律賓에遠征하야 三戰二勝一敗의快績을 거두고 歸途東京에 머물러잇다가 今七日午後三時廿八分 京城驛着 列車로 凱旋하엿다 (寫眞은 金明錫君)

氷上五百米 41秒8!

世界氷上選手權初日

【同盟다보스(瑞西)五日發】今年度世界氷上스피-드競技選手權大會는 五日부터『다보스』에서열리바 第一日의五百米레-스에諾威의 엥그네스탕겡選手는 四十一秒八이란 驚異的世界新記錄으로 一着을占하고 五千米에는諾威의 바랑그루-드選手가 依然好調를 보이여八分廿秒二(世界最高記錄은八分一七秒二이다)로 堂堂히 優勝하엿다

【五百米】1엥그네스탕겡(諾)四一秒八 2프레이싱거(米)四一秒九(以上世界新記錄) 3케록(諾)四二秒二(世界타이記錄)

【五千米】1바랑그루-드(諾)八分廿秒二 2매리-센(諾)八分廿五秒四 3와스레(墺)八分廿二秒九

金鍾奭快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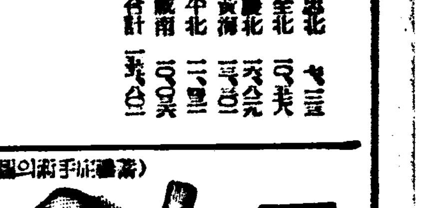
比律賓遠征中의 權鬪選手金鍾奭君은 六日午後二時二十分부터 東京YMCA에서 擧行하바 이에出場한 金鍾奭君은 早大의 大宮選手를 二分十四秒에 『K·O』로 이겻다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北支那에七七四耗를보이고 그로부터氣壓은 漸漸東方을 向하야 야러지고잇스나 朝鮮의氣壓傾斜는 緩慢하고 滿洲國及北滿洲에는 弱한 低氣壓이잇다 北滿은흐리고 其他는 개이며 朝鮮도 개이나 南朝鮮은 흐리고湖南地方及朝鮮海峽은눈이오고 太平洋方面은 흐리며日本海方面은눈이온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개여다가차차흐리며 京畿全區도 以上과갓다

昨日最高零下二度七 同最低零下九度八 今朝最低零下十二度六 今日正午零下四度三



(圖의術手鼻隆)

코나쁜사람

手術하잔코아르잔케 自宅에서할수잇는 治療와 그方法

코가막히고 맑은코、누른코가 나오며 코가마르고 머리가무겁고 골치가압흐고 기억력이감퇴되고 머리가아프고 귀가울고 … 축농증、비후성비염、비가다 … 이런 코의病은 모다 …

가지病을알고 그治療方法을 一가 本所에서는 … 無代進呈

埼玉縣大宮町(氷川公園)
東京鼻科藥房研究所

輕便洋服收納器

一個代金一圓九十錢(荷造送料二十三錢)

一個宛ダンボール函入折疊式 長三尺六寸
折疊寸法 長一尺三寸 巾一尺三寸 深八寸强

本品은 洋服三件以上걸수잇고 … 한옷을걸수가잇습니다

桂掛洋服收納器

(服掛一個付) 一個代金一圓八十錢

小包送料 一個六十七錢 二個九十三錢 三個一圓十錢

本品은洋服一着分과넥타이와와이샤쓰等一切을收納할수가잇는優美한것입니다 折疊式一個宛ダンボール函入 寸法長一尺六寸 巾七寸

特約店大募集 規定書送呈

名古屋市中區老松町 伊藤利商店 電話中三九一六 振替名古屋一〇三七七番

特許石油下向ランプ

特約店募集 カタログ進呈

名古屋市中區古渡町四 合名會社 柴田商店 振替名古屋一二三一番

洋服商各位に謹告

來る貳月一日を以て全毛織にステープルファイバー强制混入施行期日となりました 弊店は客昨夏以來特設工場にて調製を急ぎ今或施行期日以前に合夏物は全部入荷致しました 近日新見本發行致します 見本御入用の洋服店各位には御申込を願ひます

釜山大倉町一丁目 エスワイ號羅紗店 電話四五貳番 振替釜山四五貳番

高級アイスケーキ機械

돈버리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冷凍機特價販賣 豫約開始 其他各種 型錄進呈 製造營業秘法傳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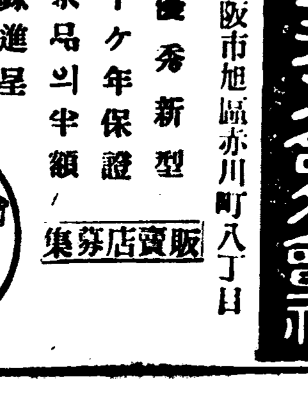
釜山府大廳町通り 朝鮮冷凍工業所 電話五六一番

平壤府水玉里(電話一〇六九番) 水玉産婦人科

院長 醫學士 李麟杰

物療科增設 八院隨意 超短波科 產室完備

아사히미싱



本社 大阪市旭區赤川町八丁目 朝日ミシン合名會社

最優秀新型 三十ケ年保證 月賦販賣 販賣店募集 型錄進呈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望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 一層合格率을 높일수잇음 規則書無料進呈 京城府水標町二丁目二番地 朝鮮警務學會 (振替京城三二〇〇番)

原田商店

旋盤、ボールバン 電氣ドリール グラインダー 鐵工用工具一式 鐵管繼手 バルブ、コツク、パツキング ボルトナツト糸捻 自動車工業材料 カタログ進呈ス御申込アレ

京城府北米倉町四十二番地 原田商店 電話本局長三九一五五番 三四五二番 振替口座京城一六八八四番

선북거 우신은거북선

登錄商標

京城東大門外 거북선고무工業社 電光 一一九

醫療用最高品質 松澤ボーサン石鹼

一個壹優待券付

株式會社 漢城銀行

頭取 林茂樹

本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電話本局二一二六一番 振替口座京城二一〇五番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驪州、大田、永同、大邱、開城、延安、平壤、平壤、大和町、素砂、釜山

樺太廳官營 海狗腎 新品到着

補精腎氣强壯에 神秘的靈效를가진全世界에唯一한 高貴의實彈眞品이외다

果然 百發百中 證明品

求服을願하시는분은 說明書請求次第無料進呈함

發賣元 合名會社 大洋貿易社 釜山府草梁町四一八 電話一一九二番 振替釜山上三番

家庭醫學

이酷寒期에 慢性胃腸病者의心得

消極的인防寒法보다도 胃腸自身의힘을强하게하라

慢性胃腸카다르와胃아토니ㅣ胃擴張等의疾患에걸려잇는분은 여름더운때도病患이더해지기쉽지마는겨울추운때에도 病에조타고는할수업습니다

그第一原因은 冷症으로서 慢性

胃腸病者는 普通사람以上

으로 추위를탄다고할수잇습니다 그理由는 오래동안胃腸病을알코잇스면 榮養이低下하고는避할수업스므로 身體는瘦瘠하야추위를防禦하는脂肪組織이적게되야 貧血을이르키는까닭입니다

그러므로 胃腸이튼튼하면따뜻한飮食物脂肪이만흔食物을만히攝取하야 추위에對抗한다고할수도잇지마는 이러한病을앓는분은食物을만히攝取하면 泄瀉를하던지 아프던지하기쉬우므로그것도할수업습니다 自然히衣服도두껍게입고煖爐로몸을훗따숩게해서運動도될수잇는대로안하게되므로 漸漸胃腸의機能도衰하야 추위에對한抵抗力도弱하게되고感氣도걸려서 그리케注意를하여도 오히려더胃腸病을惡化시키게되는것입니다

그런대 이추위에어떠케하면조호나하면療法의主眼을 아모래도胃腸自身의힘을恢復하는 다시말하면 徐徐히라도自力으로 機能의衰弱을復活시키는點에 두지안호면안됩니다

이러한意味로보면 慢性胃腸病을다만 對症藥의힘에만 依賴해서곳치려는것은 아무래도不充分합니다 消化力이衰햇스니 消化藥을먹고. 不足한消化力을補充하고泄瀉가곳치지안하니까 收斂劑를먹고 腸內의水分 分泌를抑壓하고 或은阿片劑로 過敏한腸의運動을 痲痺시키는等의 方法은할하자면

應急手當으로 根本的인療法

에는距離가너무멉니다 그것보다도 胃腸自身의힘으로 消化機能도恢復되고 胃의運動도正常케되야 胃腸의運動이잇게 될것가는데 그것이暫定的으로만끄은다할지라도 自力的인 恢復이란처 정말로根本的恢復인것입니다

그런데 ㅁ수까지그러한 意味로胃腸自身의힘을 恢復시킨다는藥物은잇겟지마는 最近全國的으로퍼지서 病院이나 家庭에서 使用하고잇는「錠劑わかもと」라는藥은 이「胃腸自身의힘을恢復시킨다는 目的에 適合한 藥입니다

이藥은 헤ㅣ케菌이라는藥用微生物에 다시 數種의 有害菌을複合製劑한것으로서 그成分과作用은만히잇지마는 中心이되여잇는가장

重要한것은 細胞原形質賦

活作用이라고하는 身體를組織하고잇는 細胞에活力을주어서 그機能을活潑케하는作用으로서 여것이잇기때문에 慢性胃腸카다루와胃아도니ㅣ 胃擴張、胃酸過多症과가튼 慢性疾患으로 胃腸自身의힘이 弱하여잇는대 對하야在來의對症藥에서는볼수업는效果ㅡ即自然히消化도잘되며 食慾도늘고便通도泄瀉와便秘가正常便으로矯正되게되는것입니다

婦人에만흔 常習便秘의害

美와젊음을빼앗는腸自家中毒

婦人은男子에比해서一般으로便秘하는習慣이만타고합니다 여것은家庭에잇서서 運動不足과 食事其他不規則한 日常生活이原因이되여서 胃腸에 障碍를이르키는것이 大半의 原因이되여잇는것인대 이常習便秘가 如何히 婦人의 美容과 潑剌한젊음ㅣ即 늙음을모르는 健康色을 保全하는대 惡影響이 미치는나하는대는 注意를못하는 이가만흔 모양입니다

大體吾等이 日常攝取하는 食物中에는 多數한 細菌이 混入해잇서서 이것이 大腸內에서不絕히 繁殖하고잇는대 便秘를하면 그繁殖이 漸漸猛烈하야 腸內의 糞便을 腐敗醱酵시켜서有害한毒素를 發生시킵니다 이毒素가腸壁에서

血

液中에드러가서 全身을돌며 各所에障害를이르키는것을腸의自家中毒이라고하야 이것이皮下組織ㅡ即皮膚에나타나면여드름과 蕁麻疹等의부스럼이난다던지 皮膚의빗갈이變하고 잔주름이저서 그럴나이도안인대老人과가튼 容貌가 됩니다 또겨울추위에弱한皮膚ㅡ即얼어터지는것도 內的으로는 여것이 原因이되여서 어려나는일이만습니다

그런故로 婦人이젊고 아름다음을保全함에는 恒常便通을正常케하야有害菌을 腸內에停滯안토록하지안호면안되는대 最近그러한目的으로는 極히適當한藥劑가잇습니다 그것은有名한『錠劑わかもと』로서 이藥의 主菌인活性해ㅣ酵가便秘를 防止함에依하야皮膚를아름답게하고 早老를防止하는效果가잇다는것은 歐米의權威잇는醫學者들이 提唱하는바이어며 이療法을『黴菌飲下化粧法』이라고해서 現在젊은女性들間에 盛히流行되고잇는바입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多種의 活性酵素와脂肪 蛋白 구리고ㅣ정 各種비타민等의綜合劑로서 體內細胞에賦活하야 新陳代謝를促進하는作用이顯著하므로 自然히

腸

粘膜을 强壯케하고 蠕動整調해서 規則잇는 便通을 보게됩니다

뿐만아니라 이藥은 다만 便秘하는 點으로 美容上에도 效果가 미친다는것뿐아니라 胃腸의 活動을 活潑히하야 營養을 놉히는 作用도 만히잇스므로 그 方面으로도 生生한 健康色을가질수가잇는것입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 東京市芝公園大門內際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番)에서 百錠入、千錠入의二種이 一日分 겨우五六錢(小兒에는二、三錢)의 廉價로 發賣되고잇습니다

손쉬운療法으로 便秘를恢復

(大阪) 片岡あさ子

나는 五年前脊髓病에걸렷습니다 오래동안 病院의身勢를지고(中略)만히나앗다고 기뻐하고잇섯는대 요지음와서도甚한 便秘와肩胛痛으로 쩔쩔매고잇섯습니다

열흘이고 수무날이고下劑나淀腸을하지안하면 便通이업서서스스로 自己몸에對한 실증이나끈 하엿습니다 각금동생이『錠劑わかもと』가 조타고하면서 한藥을갖다주므로 곳 먹어보앗드니 그러케頑固하든 便秘도술어쩍쩍막히든 肩胛痛도지금은아주낫고 머리도조아저서 무엇을 먹든지맛이잇고(中略) 정말질거운 그날그날을 보내고잇습니다 우리와가티全快할때까지 醫師의加療를밧지못하는이는 갑싸고손쉬운『錠劑わかもと』에 기괴感謝하고잇습니다 (後略)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몹시아플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변두머리를알을때……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무겁고흐릿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나 이노ー신한봉만잡수세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신대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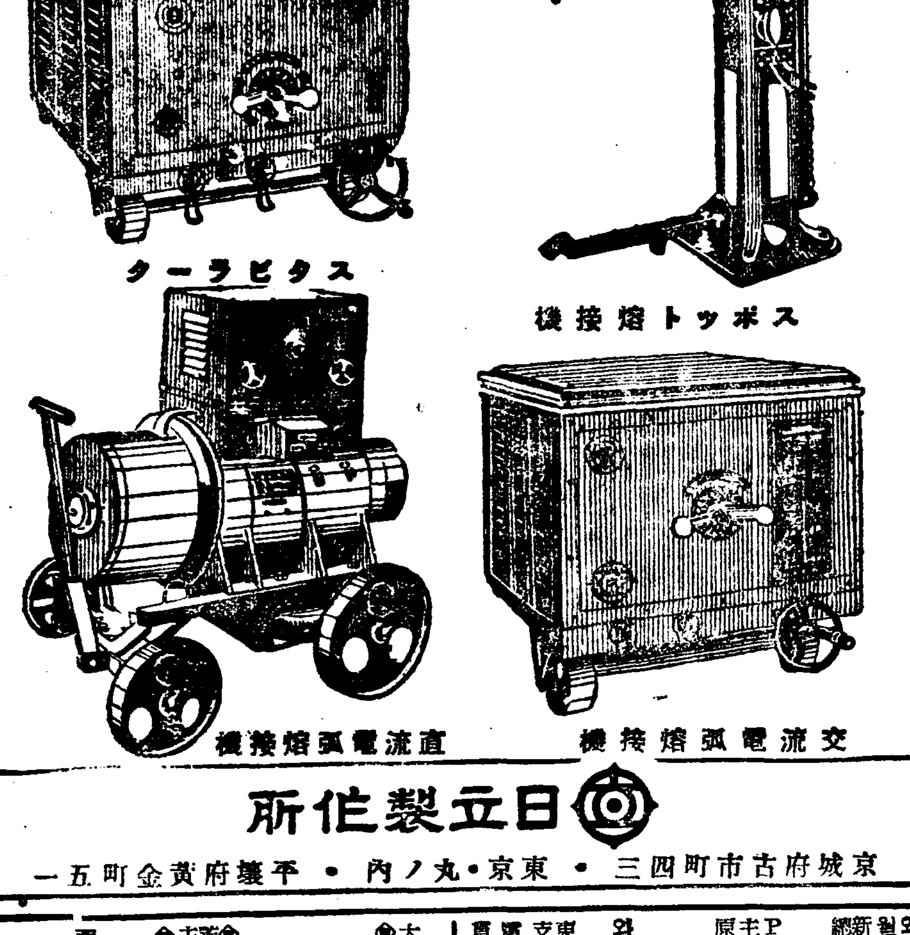
이藥은全國賣藥店에잇습니다 各處藥房藥局에도무러보십시요

이商標에注意하시압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日立電氣熔接機



日立製作所
京城府古市町四三・東京・丸ノ內・平壤府黃金町一五

二月四日부터二大無敵名畵週間
와ㅣ나社超特作努級全發聲日本版 윌리암매어다레ㅣ氏監督作品!
新天然色 總天然式 **大森林** 히바리로바ㅣ스氏 조ㅣ지부렌트氏 主演
P.C.L超特作全發聲! 主婦之友連載小說의映畵化! 原作 菊池寬 演出 成瀨巳喜男
禍福前篇 高田稔 竹久千惠子 入江たか子 逢初夢子 主演
와ㅣ나社特作全發聲 **漫畵** 全卷
東日大每聯合ニュース班特輯 支那事變戰捷ニュース
電光三九五 **優美館**

二月六日부터三日間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全勝キネマ社特作全發聲サウンド版 大江秀夫氏監督作品 時代活劇 **劍雲修羅城** 主演 松本榮太郎氏 美島麗子孃
◎ワーナーナショナル映畵社特作品 監督 マイケル・カーテイス氏 主演 シビル・ジェーソン
◎ユニヴァサル社作品 西部連續大冒險活劇 第一回作品 **大金鑛** 中篇 西部覇王ベックジョンズ氏大活躍
桃花劇場 電話一三三

清潔！이것이國民保健의第一步입니다
食事前、박게서도라오실때 반드시 花王石鹸으로 손을 씻스십시요

花王石鹸은여러가지汚垢와눈에안보이는細菌까지도完全히除去하고그리고거칠지안케뒤를잘調整하고新陳代謝를促進해서살결을潑剌히합니다

花王石鹸 (화왕비누)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家庭

불량소학생은 어데ㅣ표가나나
부형은이런점을살펴봅시요

一、공부하는데

(1) 아무 리유업시 학교성적이 자꾸떠러저 가는아이
(2) 학습장(노ー트)을잘정리하지안코 따로 통채로 베기는아이
(3) 무고히결석하고 학교에 더디가 동무의것을어들인가는아이
(4) 무고히지각과 조퇴가자즌아이
(5) 학용품이나 교과서를잘 차저가지고 다니지 안는아이
(6) 복습과 예습을 또박또박하지안는아이

二、모냥내는점

(1) 일부러 모자를찌고더럽히고 챙을꾸기어 쓰는아이
(2) 모자끈에다가별스러운단추를달고 다니는아이
(3) 모자끈으로 이화를감추어쓰고다니는아이
(4) 설명을 기입하라고제복이나 정모의 헌겁쪽대인것을 뜨더버리거나 문질러바리고다니는아이
(5) 규정외의 갑비싼양말과 샤쓰를입는아이
(6) 또시게채보가든것도갑빗싼것을 취하는아히
(7) 머리를 안까고 터벙하게두는아이

三、언어와동작

(1) 눈을 반들반들 뜨고또 흘기어서 어른을 처다보는아이
(2) 입을 실룩어리거나삐죽어리고 배우의 입짓을 흉내내는아이
(3) 느런느런 걸어다니며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아이
(4) 손을 조끼주머니나양복주머니가튼데 꼭찌르고 어깨를 웃쑥거리는 아이
(5) 남과이야기할때 남의눈치만 살피고 또 남의 눈을 피하는아이
(6) 말투가 이상스럽고류행어를 만히쓰는 아이
(7) 여럿이 모힌데가서는항상 선생님으로부터 멀리떨어저 안즈러는아이

四、가정생활

(1) 부형을 모지고 밧거나 기기를 끄피는 아이
(2) 밖게 나가는 시간이대중이 업는아이
(3) 놀러다니는곳을 잘알수 업는 아이
(4) 집안에서 공부할수 업다고 도서관을 다니는 아이
(5) 발람이이 자즌아이
(6) 여자나 또 이상한 동무들과 편지질을 하는아이
(7) 자기 책상이나 괴짝에 쇠를 채워두고 남의 손을 못대도록 주의하는 아이
(8) 이유업시 잔돈의 출입이가 만코 또 늘어가는 아이
(9) 교과서 참고서를 몰래 팔어먹는아이

一、학교박게나와서

(1) 교복교모를 안쓰고 딴외복을 입고다니는 아이
(2) 괴상한 신발을신고 또 구두끈을 길게 느려트리는 아이
(3) 신사용의 외투나 장갑을 끼는 아이
(4) 가방을 한어깨에 걸치거나 한손에 걸처들고 다니는아이
(5) 와이샤쓰를 껴입고서 그것을 보이도록 교복을입는아이
(6) 각반이나 케ー틀을 교문을 나서자마자 버서버리는 아이
(7) 길까에 서서 동무들과 이야기하기를 조와하는 아이
(8) 기차정거장이나 전차정류장에서 공연히 비방놀기 조와하는 아이
(9) 전차나 기차에 드러가서도 부인네여프로 안기를 조와하는 아이
(10) 부형몰래 활동사진관이나 극장이나 차집가튼데 드나드는 아이

二、손세간

(1) 맵시나는 편지지나 봉투를 사너흔 아이
(2) 연애소설이나 흑은 영화해설가튼것을 사다가 읽는아이
(3) 비밀히 섬문제에 판한서적을 사보는 아이
(4) 흉기라든지 기타 괴상스런 기구를 남몰래 사가지는 아이
(5) 활동사진의 배우사진이나 나체화가튼것을 벽에다걸어둔 아이
(6) 화장도구를 만히 사다 둔 아이

이상에 모든것을 참고하서서 잘수의해 보시면 그아이가 불량해 가는지 안가는지를 곳알수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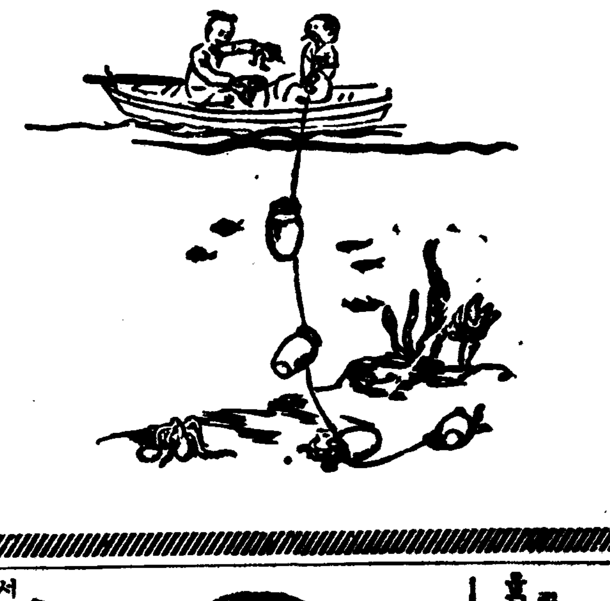
그야 한두가지가 그러타고곳 불량한것은 아니지마는 여러가지를종합해서보면 틀림업시 가려낼수가잇습니다 그래서 그런아이는 곳 교정하도록 하서야합니다 그것도공연히 걱정이나 잔소리만마시고 잘타이르기도하고 잘달래기도해서 슬슬교정시켜갈노릇을 취해야됩니다

우리차지

문어잽이

문어를 어떠케 잡는지 아시겟서요。 항아리를 줄에 매여 바다 속에 가라안칩니다。 그러면 문어가조흔집이 하나 생겻다구 해서 그속으로 드러갑니다。 항아리를 건저내면 되지안어요。

(꽃사람 오정순)



정력을돕는 콩나물

콩나물 숙주나물은 정력을도웁고 자양이만히되는것이라해서 요즘은 외국사람들도 이것을 조와하기거되엿슴니다. 그러케 콩나물 숙주나물은 무 삶으면 자양분도적어지고맛도적어집니다

送別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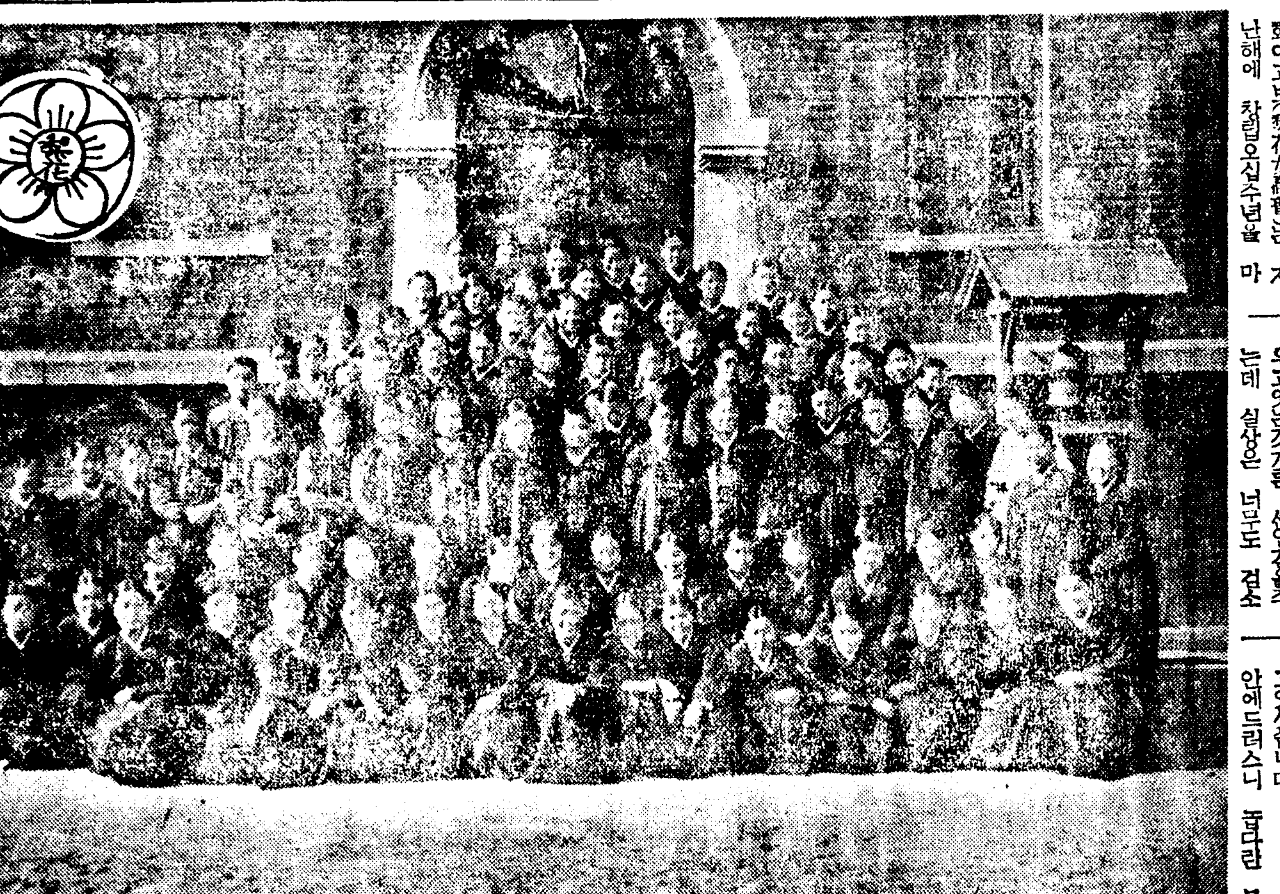
一、기약업시 서로만나서
어느결에 정이들엇고
아침저녁 마주안저서
눈물과 우슴을밧귀네
잇지마오 벗님네들
어듸로가나 서로잇지마오
잘가시오 벗님네들
편안히 가ー시오

二、기약업시 떠나는길음
어니적에 다시만나리
조흔마음 변함이업시
이겨레 위하야일하오
잇지마오 벗님네들
어듸로가나서로잇지마오
잘가시오 벗님네들
편안히 가ー시오

경성의 녀학교 올 졸업생 ALBUM

배나무오래묵어 오십여년의영화
금년에매진열매만해도아흔다섯 이제헤지나마음은한곳

梨花高女



서양인촌(西洋人村)가튼느낌을주는 시내정동(府內貞洞)일우에 자리를 잡은 리화여고보(梨花女高普)는 지난해에 창립오십주년을 마지한 여성교육계에 가장오랜역사를 가진학교입니다。 리화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서양냄새를 무척 역하게피우고잇는것가튼 선입감을주는데 실상은 너무도 검소하고 학생들이 소박한데를 랏습니다 우선들어스는 정문이 조선식의 서슭대문으로뚤녓시도 조선냄새를풍기고잇섯습니다。 안에드러스니 넓다란 붉은양옥ㅣ선이화전문교사를 인계해쓰게되여 살림이 무척늘고 중학교로는 드물게완비(完備)된 가사실습실(家事實習室)이라든지 리과표본실(理科標本室)등 훌륭한것을 봄니다。

더욱이 기숙사는 현재이백여명을 수용하고 잇다는 바 지방에서오는리화여고 학생은 모두다 이기숙사에 잇도록 되어잇서서 절대로시내 소인하숙이나마 이런데 유숙하고 잇는학생은 하나도업답니다

그리고 리화여고보에서한가지 또 고마운일은 일년에 천여원식 예산에다 너허가지고 한주일에 세번식 교의(校醫)를오게해서 전교생도를 진찰하고시료(施療)를해주므로 여기 학생들은 만도돈을내여서 병원에 갈필요가업다는것입니다。

올에 제삼십회 졸업생을 내는데 송죽조(松竹組)합해서 구십오명으로 모두영리하고 똑똑한 귀여운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중에도 뛰어나는 재원(才媛)은 김애은(金愛恩)양 문옥인(文玉仁)양 정신영(鄭信泳)양등으로우수한 성적과함께 전교에서 모범생대우를 밧는답니다 또운동방면에 잇서서는야구(野球)에리동옥(李東玉)양 빙상경기선수로 박은주(朴銀珠)양농구(籠球)에라희태(羅希泰)양등이잇스며피아노를 잘치는최규선(崔圭嬅)양도 이번이 졸업이랍니다

몃칠잇스면 버서날 검정치마에 송곳의 자주저고리에 갈비자주단기를 들여머리를 꼭꼭딴 처녀들이스켓장에서 한참 어름을 기운차게 지치고잇습니다

『난 몰라야 어서 뽑이러줘』이는어느판우에서 발레이뽈을가지고 작난하고잇는졸업반중 한학생의 무심코내노는말이엿습니다 만은이소리를듯는 기자는 도무지 무심히 들리지가 안햇습니다

몃칠안잇서 저들이 그교복을벗고 흑은 가정으로 흑은 사회로 낫선환경에 처하게될때 과연『난모른는』안타까운경우가 그얼마나만흘것인가

입춘을 마지햇것만 봄답지안흔 밧갓 날세와는 딴판으로 교정에는 개나리꼬치 봉이간 밀겨가리 봉오리가 방싯방싯해잇고 교무주임 국채표선생님 책상우에는 샛노란개나리꼬치 만발해 잇서서 어듼지 모르게 봄의 발자최가 들리는듯합니다。

선교회측에서 경영하는이계통의 학교들이 모두 동요되여 불안속에 잇는이때 리화여고보만은 여기아무영향을 밧지안코 큰튼한 반석우에 다만 안녕을설계할뿐이라고 합니다。

(松組)
鄭玉振 金大然 金永喜 崔鎭寶
金玉慶 宋良近女 申愛德 姜明淑
田山草 李貪玉 朴妍淳 崔福德
鄭寬泳 金喜貞 李彩鳳 申永愛
金寶淑 金鄭允 李良宰 朴貽京
崔英子 韓玉琇 張愛嬅 李龍成
金福先 李貞賢 金貞子 金錦秀
李惠卿 崔俊淑 林淑英 張順姬
吳再元 李興禮 田沙編 李淑姬
姜大淑 高仁順 趙順金 李英喜
李雪子 羅希泰 朴銀珠 金庚淳
朴良淑 田在仙

(竹組)
洪惠子 李恩編 李金珠 朴金英
金愛恩 桑玉 柳在玉 金永愛
尹淳頤 金永烈 柳恩熙 趙榮子
徐廷淑 李成玉 崔安姬 鄭貞植
徐成甲 閔五東 李玉松 張祀愛
柳愛卿 李貞愛 金貞任 李金順
李錦玉 李榮子 太三男 李貞禮
金德伊 徐愼愛 湯福順 金寶路
文玉仁 湯貞植 徐廷鶴 張淑姬
沈在希 朴今禮 林演愛 金熙順
鄭信泳 李東玉 金橘實 金珍珠
成末禮 李秀香 崔圭嬅 金福實
徐鳳愛(사진은졸업반과교정풍경)

교복—검은치마에 여름에는 힌적삼이요 겨울에는 검정자주빗 저고리를 입습니다。 자주빗 저고리를 입는다해서 특별한 뜻이잇는것이아니고 단지 더럼을덜 탄다해서 이빗을 택한듯합니다。

그것어째꺼나 히지안흐면 검고 검지안흐면 힌저고리가 여학교의 교복인것이상레인데 자주를 택햇다는것은 여간통쾌하고 기쁜일이아닌듯시퍼요。

교표—복잡하지를 안허위선 눈에 얼른띄우는것이 특색입니다。 폭넓은바탕에 배꼬츨그리고 한복판에는『梨花』두자가뚜려시잇습니다。 역시별뜻이잇는게아니고 리화의교라는것을 솔직히표현한것입니다。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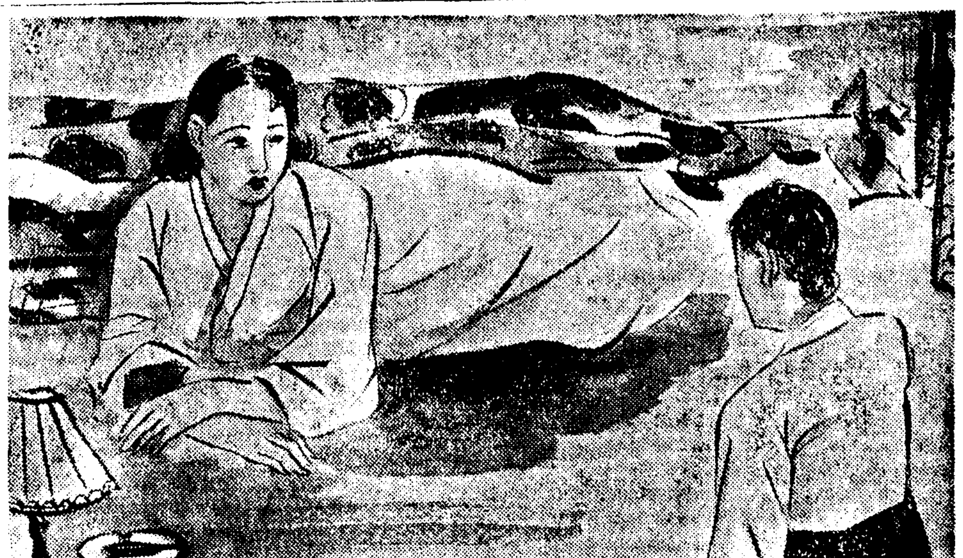
作文 一 金愛恩

가을이지나 겨울이 돌아올때는 나무이파리 다떨어저서 이세상은 쓸쓸히되엿슬때 눈이와서 이세상을 뒤덥퍼비ㅅ자루를 가꾸로세운듯한 포푸라나무에는 綿花꼬치피인듯 소나무가지에는 하얀한바꼬치 팁스럽게피여잇는듯 은세게는 힌솜으로 뒤더퍼논듯이 山、들、길、마당 어대어대할것업시 모두하야케눈이부시게 뒤더퍼잇고 장독대에는 독과 항아리가 上半身만옷을 입고잇다。 길에나가본즉아직 발자욱이업는 하얀눈이잇는데 걸을때에는 참아밟기가 아깝기도하고 기분조케 발이옴겨진다。

큰마당에는 동리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눈사람을 만들며뛰여놀고잇다。 개는마치 자기생일을 당한것가티 이리저리뛰여다닌다。 동리할아버지는 힌수염에 힌눈이부터잇는것이 센타크로쓰 영감과가티보인다。 學校二層에 올라가아래를보즉 세상은다힌눈에덥히여 더러운것 정한것 초가집이나 개와집이나 벽돌집이나 나즌데나 노픈데나 어데든지 일제히두덥혀잇다。

이와가티 이梨花동산에서 자라나는 學生이래도 배꼬체하얀인 梨花精神을 이세상에 퍼트려 더러운것 정한것초가집 기와집나즌데 노픈데 어대든지 이눈과가티 힌눈가튼배꼬체 참빗츨나타내지에 힘쓰기를바란다

中篇小說 女人命令 【39】
李善熙 作 崔根培 畵



거리의등불(六)

숙채는 안나에게 손을 쳐혀서 그의방으로 들어갓다。

『아ㅡ』

이세상에 가장 질서를 일흔곳이잇다면 그곳은 곳이바일것이다 바아에ㅅ세간이 하나도제대로 노힌것이업고 발드려노흘틈도업시 무엇이 널렷다。 그러나 그렇더잇는것은 물건들은 지저분한 행낭방 녀마와 달러서모두다 향수를 발른것가튼 아름다운 물건뿐이다。

『어서들어오시오』

안나는 자기가 자든 자리를 한쪽으로 밀어너흐며 숙채에게 자리를 권한다。

숙채는 주는자리에 조심스레 안즈며 다시금 방안을 살펴보니 이상야릇한 물건도 만호나 하나도 세속적인 갑나가는 물건업다。

다만 마주편 벽에 오뎀룽이가 보이고도 남을만한 큰체경이 안나의 방생과 함께한듯사람의 손때로 걸이들엇고 아직도 안나의 체온이 배여잇슬그 칙구는 야단스럽게 큰문의를노흔 비단이불뿐이다。

『나는 밤에는 송과씨귀신처럼 일을하고 나제는 이러케 잠을 잔다오。퍽 게울으고 고약스럽게 보이죠?』

『아이 별말씀을……』

숙채는 아니게아니라 이것이 모두 별다 쭉쭉이라고 생각햇스나 그분의기가 뚝마치 전에 꼭마단 구경을 할때처럼 야릇하고 아름답고 또 요술가탯다。

안나는 치의를 입은채 두손으로 뒷머리를 까지거리를 하고 밀어노흔 이불우에 철석기대안드니 두다리를 아프로 쭉 뻗는다。

『손님이오섯는데 용서하시요。 나는 본래 이러케되엿다니까요。 어려서 우리부모께 맨가지 예절을 배우기는햇지만 내가이러케 떠도라 다니며 사는동안 죄다이저바리고 한가지도안남엇서요。후후……』

안나는 유쾌한듯이 그냥드러눕다시피해가지고 팔을 올려보내여 머리맛 창문을 열어노흔다。

『새공기가 조쿤。』

숙채도 차ㅡ한 새공기를 마시니 조핫다。

『내가 처음숙채씨 왓슬때편인상이 조핫서。』

숙채는 그저 잠자코 우서만 보일뿐 어떠케 말을해야 조흘지몰랏다。

이때 아까 나왓든 사내사람이 쟁반에 커피와 사탕떡을담어들고 들어온다。

『응 커피를 벌써 끄렷군。자어서 드시요』

숙채는 처이라 도무지 쓰독해서 마실수가 업건만 안나는 그것도 실컷다한다。

『잠간만 기다려 주시오 내세수하고 우리 조반먹읍시다』

안나는 수건으로 머리를 꽉동여매고 세수하려 나간다。

여기에 이안나의 내력을 잠깐 소개하면 그는전신이 영화여배우로 지금은 나이를먹어서 이러케한쪽에 떨어저장사를하는것이다。

물론안나에게는 여러가지경력이잇는데 말하자면 시골서어떠케 자기양친을 떠나서울로오든일이며 그동안가지각색의 고생사리하든 이야기며가 수두룩하지만 그러것은 그의반생의잇서서 그저 고명이나 양념격이고 그의 주人대되는 생활은 두말할것업시 『연애』다。

이제 그의연애생활을 가만히 떠저보면 그의남편되는 사람이 이루헤일수업시 만흔데 이것을 편의상 학교에서 학생들을 반렬을세우드시 두렬로『나란이』를 시키면 녀녀히 일소대는일울것이겟다。

그러나 안나에겐 사실한사람의 남편도업고 그만흔 남편은 한사람의 예외도업시 죄다 다른여인의 남편이다。

안나는 차차 나이가 드러갈수록 어린애기 하나나키를 바라서 세번이나 수술을 햇건만 아무도 안나에게 애기를 주지안햇다。

『지독한 고독이다』

안나는 이한마디가 자기의전부인것가태서 때로는 공연히회를 잘낸다。

『조반 잡수서요』

『자ㅡ우리밥좀 먹읍시다』

시게를보니 꽉 한시반이다。

せきを止めに ベルマン
ぜんそくに ベルマン
百日咳に ベルマン
絶對中毒性なし

輕한기침으로 肺炎、氣管支炎!
咳嗽의放任은危險합니다、그러나麻痺性의鎭咳藥은中毒이 더욱危險합니다 ベルマン은 조곰도中毒性이업서、老人小兒에도安心하고 使用할수잇는良劑로서 鎭咳祛痰의 作用이强하고、心臟衰弱을防止하는 特性이잇슴니다!

괴로운 發作을鎭定하고心臟을保護하고呼吸을便케하야밤에服用하면安眠이됩니다

기침을업새고 祛痰이잘되고 肺炎으로의 變症을防止하고速히낫게합니다

主効 감기기침、喘息、百日咳、喉頭가다루、氣管支가다루、咯痰、肺炎 肺結核기침

唐澤博士推奬 冬節家庭必備藥!
價 藥 五十錢 一圓 二圓 試用三十錢
各藥店에서好評
大阪·東京 丹平商會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二月七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晝夜三回公演 始映 一回十二時、二回(?)、三回七時 大衆料金二層二十錢階下十錢均一
유나이뎃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윌니암우에루만氏
名畵 野性の呼び
主演 구라ー크케이블氏 잭크·오ー키ー氏 로렛다·영그孃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原作 人氣作家의小說 脚色 監督
人妻椿姉妹篇 女の命
東日大每北支ニユース多數

中央館 永樂町 本三〇一四
每日晝夜二回興行
七日ヨリ十日マデ四日間 階下席十錢均一
大岡怪童三角寬 主演
俺等の仲間
日本版 特作超映畵 ユロムビア
主演 イーロ・ナーマ
其の夜の眞心
主演 葉菓下木男州九部洞
江戸の蝙蝠
大阪國際ニュース

三月六日부터三日間(大活劇週間)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東寶映畵社特作品 天津駐屯軍司令部監修
北支の黎明
ユニヴァサル社作品 西部連續大活劇 大金鑛 終結篇
西部劇王バクジンス氏大活躍
コモンプリテイジユ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キングソロモン
監督ロバトスチブンソン氏 主演ボイルロブリン氏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七番
●東劇二重興行에注意● 晝間은映畵午前十一時始映! 夜間은演劇午後七時開演!
▲二月七日부터▼ ◆夜間靑春座上演劇題◆
九月山人作 『이子息뉘子息』 一幕
宋影 作 『流浪의處女』 三幕四場

東洋劇場 電話光化門 二三六四(事務室專用) 二二五四(劇場現場用)
斯界의巨匠宋影氏의猛打한『힘든ㅣ流浪의處女란이한篇劇은오로지感激과눈물의『로맨쓰』일것이다!부듸이번機會에鑑賞해두시라!
△晝間映畵▽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松竹キネマ 2月4日ヨリ上映プロ時間表(8日マデ)

	1	2	3
ニュース	10•40—11•07	2•37—3•04	6•50—7•17
沈默の愛情	11•08—11•59	3•05—4•13	7•19—8•10
大地 The Good Earth	12•18—2•27	4•15—6•24	8•29—10•38

次週豫告 {大地 新家庭曆}
明治座

◆特選名畵鑑賞週間◆ 階上 階下 共三〇錢二〇錢均一
◆今週映畵 自二月五日 至二月九日
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 讀賣·聲映ニュース ◆上映
新興키네마時代作品 ◆日き手の人人◆ 高田浩吉、眞山くみ子
파나마운트超特作品 ◆삼광할쓰◆ 푸레드릭·마ㅡ취·마리안 ...
次週十日부터 『라벤엘ㅡ』 獨占封切
團成社 電光九九五

本報當選作品「남생이」讀後感…②

우리는한갓부끄럽다

朴泰遠

近來 이렇어 文壇에 나오기가 어려웁다는 말을 듯는다。만은 五六年以前하고만 比較하여 보드라도 文壇水準이라는것이 그만치 놉아젓다 보겟다。따라서 이제는 좀처럼하여가지고「나로라」「내作品이로라」하고 나설수가 업다。이것은 朝鮮의 文壇을 爲하야、누구나 慶賀하지 안흐면 안될일이겟다。

爲先 新聞社의 新春行事의 하나인「懸賞文藝」를 두고 보자。五六年前까지만 하여도 그것이 어든 作家란는 作品에、그다지 傑出한 者가 업섯다。年末이 가까워 新聞紙上에「新春文藝懸賞募集」의 社告를 보고 나면『엔만 관에 여기나 應募해서 賞金을타먹으까。』

그러한 말을 謙遜으로나마 하엿고 또 찬밥 應하지 안흐니까 그러지 하기만하면 될터업시 當選될 自信쯤은 가저섯다 뿐만아니라 風聞에 依하면 事實 旣成作家도서 이름을 감추고 이에 應하여 當選된이가 그때에는 더러잇섯든것도갓다。

그러나 이즘에 와서는 事勢가 그때와 매우 달으다。一般으로 新人이라 實이要의 實力이 매우 놉라온者가 잇서서 才質잇는 旣成作家들도 한때 賞金을 貪내엿다거나하는 그러한 不純한 動機에서 食卒之間에 이루어진 作品따위를 가지고서는 到底히 그들과 힘을 겨루지못하게되엿다。

金始鍾氏(金東里)、鄭飛石氏가튼분이 모두 堂堂히 文壇水準에 到達한 作品을가지고 文壇에나와고 또只今도 旺盛히 活躍中이거니와 作故한 金裕貞氏도 亦是「소낙비」가 懸賞文藝에 當選되므로써 登場하엿든 作家로、그의 文壇生活은 數三年에 不過한것이엿스나、그 作品活動에는、質에잇서、量에잇서 實로놀랄만한것이 잇섯다。

그러 [illegible] 作品을 맨들고 씨오는中에 文壇的으로 좀더 나이를 먹어왓슴이인 나와가튼者는、그들의 力作을 對할때마다 은근히 두려움을 마지안흐며、또한 그곳에서 新鮮한刺戟을 밧지안흐면 안된다 今年의 當選作品「남생이」에서도나는亦是 똑가튼 느낌을 바덧다。六七回까지를 읽엇슬때에 突然 旅行을하고 어쩌고 그러느라 남어지를 마저 못보앗스니「남생이」全篇을 通하여 責任잇는 말은 할수업다 그러나 그만큼만 읽어도 그作品의 地位라든지 作家의力量은能히 짐작할수잇다 그作品이 發表되기前에 나는이미 文壇風에거서 조흔作品이 들어왓노라고 그러한 말을듯고 이번에는 또 누가 어떠한 作品을가저 우리를 부끄럽게 하여주려나 하고 은근히 두려움을 마지안헛섯다 마침내 發表된것을 보자 나는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고개를숙엿다。이러한이가 이제껏 文壇에 나오지안코 그래 評家들은 부질업시 文壇이 沈滯하엿느니 어쨋느니 그랫든것인가 하고까지생각하엿다。

들으면 玄德氏는 金裕貞氏生前에 親交가 잇섯다한다。그리하여 그러한지는 몰라도 이번「남생이」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그題材나 文體에 통아간 金氏의 影響을 느끼지 안흘수업는바 아니다。그러나 金氏보다 訓練된 玄氏의 筆이 훨씬 更新하고才氣잇는것은 또한 어찌할수업는 노릇이라 할밧게업다。

생각하여보면 내가 읽은 範圍안에서는 金裕貞氏의「소낙비」보다 金東里氏의作品이(三四年前에 東亞日報에 當選된作品을 말한다)—나엇든것 갓고、그보다는 鄭飛石氏의「城隍堂」이 傑出하엿든것 가튼데、이번 玄德氏의「남생이」는 鄭氏의것보다 좀더 조흔 作品이다。거듭 말하거니와 朝鮮의 文壇을 爲하여 慶賀하여 마지 안는바이다。

나의論爭時代 ①

지난날論敵들의面影

幼年兵後援隊로論壇에데뷰

林和

내가評論의붓을든것은 一九二七年代부터러인데 그때는 맘이 有名한 두개의論爭時代를 지나自己의 地盤을 鞏固히한 直後엿섯다。即 朴英熙對廉尙燮의 敵對的論爭과 金基鎭對朴英熙의 形式主義論爭이엇다。

그럼으로 後者의 論爭에서압수잇듯 新興文學은 敵에對한優勢를 確保하얏고 그뒤론 自己陣營의 整備와 思想的 純化를 爲한 一種 精神工作이라 할수잇는 論爭이 主要「테—마」이엇다。

要컨대 내가 論壇에「데뷰」한時代는 바로 新傾向派文學이 明確한 政治綱領을 가진 푸로文學으로 突進할 過程이라할수잇는 時代엿다。

一二七年붙어 이러난對「아나키슴」의 論爭이 이運動의 集中的 또한 決定的 表現이엇다。다시말하면 푸로文學에 잇서『볼쉐비즘』의『헤게모니—』確立을 爲한 뜻기픈論爭이엇든셈이다。

金華山、李鄕等에對한 尹基鼎 趙重滾이 兩便에 主要論爭者이엇는데 나는 後者의 幼年兵後援隊로 登場한셈이다。

勿論 나도敵의主力金華山砲擊에 助力하얏는데 論爭途中 뜻아니한 새論敵과邂逅하야 한참동안 單兵接戰을 頒하얏다。

只今 某中等學校 圖畵敎員으로게시고 當時 東京美術에 在學中이시든 金珖俊氏가 美術上에『아나키즘』을 導入하랴 登場한때문이다。

要컨대 論爭은 色彩를한가지더 豊富히한셈이고 나는 홀로 男氣와 武力을 試驗할 好機會를 어든 셈이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理論的으로 依據한地盤은 新興美術理論이 아니고 獨逸表現主義者『칸딘스키』未來派의『마리넷치』도 露西亞構成派의『아레세이·깐』等이엇다。

그럼으로 나는 自己流의 折衷的理論을 가리고 論敵을 친形便인데 論爭의勝敗는 나自身의 力量에잇다느니보다 大勢의 울즉임으로 우리便의勢利로 끗나섯이다。

그러나 이論爭에서 나는 푸로文藝運動가운데 드러오면서도 아즉 채 버리지못한 雜然한 反抗藝術의 혀잔物로부터 나自身을 純化하는 조흔 試鍊을 通過한것이라 할수잇섯다。

이論爭을 通하야 나自身도캅프」도 確然한 政治的 思想的 路線을 樹立하야 一九三〇年代의 高峰으로하야 出發케되엿든것이다。

×

그다음은 二七、八年 有名한方向轉換問題를 中心으로「캅프」本部와 東京支部와의論爭이 二八年 八月總會로 끗막으뒤『캅프』는 여러가지 試鍊을 밧고잇슬때 八峰은 所謂『연장을 수구리라!』는 主張을 펴뎃키 始作한때가 잇다。二九年末로부터 客觀情勢의 웅새이란데 根據를두고 當分間은 運動이 後退하지 안흘수업다는것이다。

三〇年四月號?『朝鮮之光』에서 나는『原則的誤謬에 對하야』라는 題目으로 大略 다음과가튼 意味로 八峰說을 反駁하엿다。

即 情勢의 웅새은 事實이다 그러나 環境이 有利해질적마다 연장을 수구리면 나종엔 無原則한 타협、푸로文學그것의 抛棄에까지 이른다는것이엇다。그러므로 利害지못한 情勢일사록 原則을 確勢하고 그것을 돌코나갈 새方途를 찻는것이 本來의 길이라는것이엿다。

이論爭은 뒤에 내가 東京간뒤 八峰이 論爭을 하나인가 더더쓰고 나도 하나 더 썻스나 意義는 比較的 컷다 할수잇다『캅프』는 이論爭에서 새로 이러나라는 右翼的動搖를 미리아러코—그것을 克服前進한다는 方向을 取해기때문이다。그러나 그때 八峰이 年少한 論敵인 나에게 取한 說得的이고 雅量잇는 態度는 아름다운것이엇다。내가적지안흔 論爭中 제 論敵에게서 親密과 友情을 늣기기는 八峰한사람뿐이엇다。

그는 雅量잇는 批評家이라기보다도 訓練된 政治家와 갓다고 생각되엇다。

그뒤 누구 個人을 相對한것은 아니라도 一九三一 中央日報에 쓴『朝鮮藝術運動 當面의 中心的任務』란 論文은『카프』의 藝術部를 論難하고 그外의 克服될 全傾向을 分析批判한것으로 나自身에 잇서서는勿論『카프』運動의 새時期를打開한 文章으로 나에겐 퍽 뜻기픈글이엇다。

그뒤 今日까지에 이르는동안 主要한 論爭은『카프리文學』과의論爭 海外文學派와의論爭 朴英熙派의의論爭『휴매니즘』論爭等인데 直接 關係으로 아니關係된것이 別로 업다할수잇다。

『휴매니즘』論爭은 昨今兩에일이라 이곳에 紹介할것까지 업스나『카프』論爭과 海外文學論爭을 들면 後者는 우리가 計劃해든것이요 前者는 생각지안형든 論爭이라할수잇다。

三二年 여름 赴休이 朝鮮日報에 잇슬때 새作家들이 宗敎와神秘主義로 가는대對한 論文을 하나쓰라는 付托을맛터 쓴것인데 反響이 意外로 커서진자 僧侶가 뛰어나오든 [illegible]이 버러젓섯다。鄭芝鎔도 大端히 慾안 表情으로 一回分인가 쓴일이 잇다 이反感은 내가안쓰고 玄從赫君이 英都이란이를으로 써서 論爭의 끄슬마엇다 그러데 愉快한것은 이論爭이독사냥하든것이다。

내論文이 모리군의 정소리나의 役割을 한셈이다。

넘우나 엇사리 僧侶가 나와고 그들이 羅馬法王불리안케新興文學에對한 白十字軍의 主役인點을 讀者에게 明文的點綴이 興味잇섯다。

끄드로 海外文學派와의 某君의 匿名論文으로부터 始作하야 彼此 數三回의 接戰이 잇섯는데 우리가 古典硏究의 方法論的無原則을 非難한데對하야 李軒求氏가「체르킨」(?)의說을인용하는等 缺點맛지안은 쏴흥이感이만엇다。

내自信의 批評活動의 大部分이 個人의 好戰癖때문이지 엇전지는 몰라도 一方 이事實은 朝鮮文藝批評史의 特殊性을 말하는 資料도 되지안는가 하고 생각할수도 잇는것이다。

學芸

◇女◇性◇論◇

女性이란무엇인가 (二)

金基錫

그러나 아까아레서도 보아왓거니와 우리들을 예유산이아득한 世界를 본래「상전과종」의 體系로 보려는것이 잘못이아니겟습니까。흙한덩이 풀한포기도 그것을 다르고각구는사람 이사이에잇서조차도 누가상전이고누가 종이고가아니라 상전이면다 같은상전 종이면 다한께종이되는것이아니겟습니까。

상전으로서의男性과 종으로서의 女性。사람으로서의 男性과 물건으로서의 女性。여기에서우리들은 무엇을어덧습니까。아니꼬오롱락과 마음에업는아청 사나운 희롱하거기에 따르는 고려 속여넘기는재주와 뒤미처오는嫉妬 이리하야 男性은 女性을 지밟음으로해서 男性자신을 지밟엇고 女性은 男性을협고해함으로해서 女性자신을 잃엇습니다。

요새 一部의새로운 女性들사이에는 女性이男性과다를게업다는것을 主張하는분들이잇습니다 女性이 男性보다 못하다니말이되나。같은 같은밥 같은머리와가튼심장 어데가못하고들한가 男性의일감이란것을 女性에게맛겨보라。男性보다나흐면 나엇지 못할리구。自己들의일리를 우리들에게 解放하지안는데잇는게거등 이리하야 그들은 女性이男性에게집비업다는것을 무시高調하고 설혹 女性이 그소질에잇서 男性에게꺼리고족잡히는面이 잇다고해도 그것은 男性의 女性에대한 저오랜동안의전제와횡포가 女性의근본바탕을구기여노흐데 지나지안는다고합니다。우리들은 오늘의이새로운見解에귀를기우려야합니다。그리고 그것이 아프로 어떠케자라나는가를 정성드려 살피고직혀야합니다。

다른의론은 그만두고라도 위선 작난감으로서의 女性을 작난감아닌한개사람에까지 이끌어올리데대하야 그공을 크다고하지안허서는 안됩니다 女性이나 男性이 본래 同一한水平線우에잇고 또서로어개를 겨누고서야 한다는데 대해서 反對할이가누굽니까

그러나 女性이 男性과아울러 선다는것과 女性이男性이된다는것과는 아조달습니다 女性은어데까지던지 女性이 되어야합니다 女性은 女性으로서의 얼굴을 지녀야하고 女性으로서의길을 걸어나아가야합니다 그러데 이 이른바 女性의 얼굴이란무엇이고 女性의길이란어떤것이겟습니까。

四

女性은 언제나「그대」로서우리들에게 마조섯니다。「나」男性에게 마조 서는「그대」로서의 女性이란 무엇이 겟습니까 女性과 男性이 서로 얼매이는데는 아래와 가튼 두갈래의根源的인 系列이 잇습니다「안해와남편」「어머니와아들」하나를 性의系列、하나를 血의系列이라고 부르려고합니다

小文庫

趨庭錄 (二)

丹靑의禁法

袋山生

녯날 朝鮮의 法으로는 사사人집에 三門을 내지 못 하고 附椽을 달지 못하고 百間을넘찌 못하고 또 屋舍內外에 丹靑을 칠하지 못 한다。그 것은 아모리 高官大爵이라도 一般庶民이나 마친가지로 決코 禁法을 어기지못하는 것이다。三國史記를보면 各階級의 屋舍에 對하야 眞骨은『不許以金銀鍮石五彩』六頭品은『不許以金銀鍮石白鑞五彩』五頭品은『不以金銀鍮石銅鑞五彩爲飾』이라고 하얏다。여기서 五彩라는것이 丹靑을 가르킴이라면 사사人집에 丹靑을 禁하는것은 실로 오래된 法이 아니엿엇든가。그러나 試筆諸論을 보면『國制私家不施丹靑。而安東禮安之間士大夫名亭丹靑燦然。鎭俗朴野。乃反如彼。未知此風自何而始也。』라고 말하얏다。安東과 禮安은 自古로 儒者의 本據되는 地方이어늘어째서 이와 가튼 禁法을敢히 犯하얏슬가。마침 霽谷集에는 여기 對한解答을아조詳細히 記錄하야 노핫스니그全文은 即『金東岡宇顒乃觀壽南溟行錄曰所居書堂皆施丹雘盖取其明淨也。洪忍齋彦弼撰卿長同墓碑文。曰節儉自持。所居第宅不施雘。竹泉敬語曰沈領相連源盡避家。至施丹雘。李廷鶠時白賜第在齋子洞。此本光海朝首相朴承宗家也。壬辰亂前所建。故內外皆塗丹靑至今宛然國初全盛時京師氣像之繁華可知也。耳目習熟。南溟以處士猶不覺華靡。即今丹雘勳戚貴主。祠宇外未嘗丹靑。習俗之移人如此』라는것이다。萬一 霽谷의 이 이야기로 듯건댄 처음에는 高官大爵은 勿論이요 그以下로도 能히 屋舍에 丹靑을 칠하얏기때문으로 沈相의 宰家에도 丹靑을 칠하고 南溟가튼處士도 丹靑을 칠하고 柳辰同이丹靑칠하지안흔것을 오히려 節儉의 美德으로 稱讚하게쯤 되엿든것이 事實이다。그러니까 新羅時代에는 丹靑을 禁하얏다고 하더라도 漢陽朝初葉에는 아모 相關이업든것이 아닐가。安東禮安等地의 士夫가 넷習慣을 지키어 그대로 丹靑을 칠한것도 怪異할것업건마는 그것을 모르는 試筆諸論의 筆者로서는 朴野한鎭俗과 反對됨을 怪疑한것이다。그러면 사사人집에 丹靑을 禁하게 된것은果然 언제부터이엇든가。

李時白의 집이 本來 朴承宗의 집으로서 壬辰前 建築이되야서 丹靑이 지금까지 完然타고 한 것을 미루어서 大槪 壬辰兵亂에 灰燼된 서울을 다시 再建할때부터가 아니엇든가고 推測된다。漢陽朝에서도 屋舍以外 服色 車騎等 모든데 層下가만흐나 三國史記에 보이는 新羅의 制度보담은 比較的 複雜치안타。高麗一代 武臣의跋扈와 外族의 往來가 만든터라 아마그로 因하야 만히 紊亂된 것이나 아닐까 한다。

歷代史談 ⑤

滿缺、漢缺의制度

崔滄海

元의 初期에 官府文書는 主로 蒙古文字를 쓰고 漢文은 쓰지 안헛스니 大槪 蒙古文字는 어느程度까지 漢意가 可能한 까닭이엇지만 滿洲文字는 蒙古文字만도 못하야 官府公牘에 專用할 수 업스니 이것을 가지고 보아도 文化上 滿人이 漢人에게 依賴할 必要는 蒙古人보다 더 컷든 것이다。

淸太宗이 漢人 洪承疇로 그 顧問을 삼고 范文程[illegible]하니 同族의 諸貝가 不平하거늘 太宗이 懇論해 가로대 내가 中原을 取하랴해도 소경이 길을 모르는 것과 가트니 이제 洪承疇를 얻은 것은 마치 水母의 蝦잇는 것과 갓다고 하얏다 그래서 滿族의 入關以前에는 范文程이、入關初에는 金之俊이 힘잇는 政治顧問으로活躍하얏스니 이때 部落制에서 漢人의 政治參與가 事實上 必然的이엇다。

그러나 滿人이 漸次 支那의 內情에 通達함을 따라서 漢人依賴의 不利를 깨닫고 制御의 方法으로서 官制를 改定하야 主的으로 滿缺、漢缺法을 썻스니 (一)、滿缺이란 오로지 滿蒙人을 任用하는것이며 (二)、漢缺이란 오로지 漢人을 任用하는것이데 缺이란 關失의 義가 아니고 官職 交位의 義니 補缺의 缺字와 가튼 同時에 交位、空職을채우는 義이다 그래서 諸官職中에 滿人을專用할것과 漢人分配할것을 巧妙히 配定하얏다 第三으론 滿漢通用이니 字義와 가터서 說明할것도 업다。

形式上 政權分配의 制는 滿漢 各半이라하지마는 實際에 잇서서는 決코 相半이 아니다 例하면 中央政府의 京官中

大學士、尙書、侍郞—定員各四人、滿、漢各二人

內閣學士—定員十八、滿人六、漢人四

內閣侍讀學士—定員八人、滿人六 漢人二

內閣侍讀—定員十六人 滿人十四 漢人二

內閣典籍—定員六人 滿人四漢人二

中書—定員一百二十四人 滿人九十四 漢人三十

六部의 郞中、員外郞 主事—定員五百六十二人 滿人四百漢人一百六十二

(中書는 內閣事務官이라 할수잇고 郞中은 一等書記官 員外郞은 二等書記官 主事는書記官 或은 書記官補라고도할수잇는것이다)

此外에 都察院(即御史府)通政司 大理寺 太常寺 太僕寺 光祿寺 鴻臚寺 國子監等大官衙의 定員은 모다滿、漢人이 相等치 안타。

그러면 上記한 許衡、劉秉忠等은 元朝의 許衡、金之俊等과 恰似하야 비록 政治顧問의 重任에 잇섯다 하더라도 다 滿族의 貴戚、大臣의 虎威를 狐假함에 不過한것이고 그 本의 運用은 百퍼—센트 滿人에게 잇섯든것이다。

그後 康熙、雍正、乾隆의 諸帝時代까지도 實權掌握者는 依然히 滿洲人이엇고 信用밧는 滿族大臣等은 一種 疑田가만든것이다 滿朝中葉以後

雍正年代以來로 權力이 차차 漢人에게 옴겨가는 傾向이 잇섯스나 이것은 君主의 特別한 寵遇에 依한것이오 官制上滿漢施用의 人數가 不平等하단것은 依然히 如故해든 것이다 그러면 滿朝二百六十餘年間 漢人의 政治上 地位와 生活은 그狀態가 如何햇든것을 可히 想像할수 잇지 안는가

다만 滿朝 翰林院의 長官인 掌院學士는 定員一人、滿漢各一人이고 同院의 侍讀學士、侍講學士、侍讀、侍講의四重官의 定員은 五人인데 滿人二、漢人三이엇스니 이記定은 例外엿스나 翰林院 即文學所의 作實上 特히 그러치 안할수 업는것이다

科學法則의兩面 ⑥

—經濟法則의歷史的個別性—

徐寅植

나는 끄드로 社會派의가장徹底한代表者「스탐조만」의 方法論에 大略論及하고말것다 社會派諸學者의方法論은 그基本的性格에잇서서는 이곳에서말한에臨하기때문이다。

그는 人類의經濟生活에잇서서의『社會的內容』社會的要素의重要性을高調하고 그의理論的再現에 經濟學의任務를두엇다。그러한 意味에서 그는 人間의心理的要素를 經濟行動의根本的契機로보고 그의社會的要素를 無視한 心理學派의理論을否定하엿다。그러나 그는 또한 古典學派가諸所得形態(賃銀 利潤 地代等)의 起源을說明하기爲하야 經濟學에 導入한 勞働 生産手段 土地等을 自然的技術的要素라하야 經濟生活에잇서서의 그들의積極的作用을否定하엿다。이리하야 그는一方 墺太利學派의心理主義와他方 古典學派의 自然主義를排除하고 일은바『社會的方法』에依한 經濟의『社會的內容』의究明을 提唱하엿다。따라서 그는 經濟의 社會的內容을强調하면서도 그일바「社會的內容」을 物質的技術的體制와는 完全히分離하야 解釋한다。이點에잇서서 그는 또한 카피탈의著者와 對立되는立場에 서게된다。兩者가 모두 經濟의 社會的性質을밝히면서도 카피탈의著者는 經濟的社會的內容 即 生産關係는 物質的技術的生産力의 一定한發展段階를 前提하고 成立하는것이며 前者는 後者에依하야 決定되는것을밝하엿다。다시말하면 經濟에잇서서의 社會的인것과 物質的인것의辨證法的統一 前者에對한後者의規定的役割을 主張함으로써 經濟學을 一元的唯物論의우에 建設한것이 카피탈의理論이다。그러나 스탐조만에依하면 經濟의이러한唯物論的把握은 人間을 物質에 依하야 操縱되는「허수아비」의 地位로貶下하는것外에아무것도아니다。따라서 物質的技術的生産의 經濟에依하야 經濟의社會的性質을 說明하는것은그로서는 容認할수업는바이다。이리하야 그는 物質的技術的生産力은 因果法則에從屬된 한낫의 自然的範疇로보고 生産諸關係—經濟의 社會的形態는 價値關係에依하야 決定되는 한낫의 倫理的範疇로보앗다。生産諸關係는 人間의倫理的意志의 所謂의産物로서 一定한消費的目的에依하야 規律되는『社會的統制』의結果이다。

그리하야 그는『經濟關係로 一定한『社會的統制』型으로 보고 經濟學의硏究對象을 그러한意味의『社會的內容』에두엇으며 그것은 因果原理에 依하여서가아니고 目的原理에依하야 硏究되지안흐면안될것을 主張하엿다。

따라서 이러한倫理的『社會的方法論』에서 出發한「스탐조만」은 利潤、賃銀、地代、價値等 經濟諸範疇를 一定한消費的價値를追求하는『社會的統制型』의目的의理想에依하야 規定되는것으로보앗다。例하면 利潤은 資本이生産手段을占有하고잇는데서 收取하는 剩餘價値의轉化形態—流通過程을通하여서의 表現形態가 아니다。그와反對로 그는 社會的統制의一定型을基礎로하고 資本에 生産手段에의報酬로서 讓與되는 生産物의一定部分이다。賃銀 地代도 同一한社會的統制型에依하야 決定되는 勞働과土地에의報酬狀態이다。

따라서 스탐조만에依하면 生産物의價値도 社會的統制型에依하야 勞働 生産手段 土地所有者들에게 配分되어돌아가는 各所得總額에 依하야 決定되지안흘수업다。所得形態가價値에 依하야서가 아니고 一種의 計劃經濟(?)에 依하야決定되는 以上 價値는 所得形態에依하야 決定되지안흘수업기때문이다。이리하야 스탐조만의 經濟學에 잇서서는『生産』의 基本的範疇인價値가『分配』에서決定되는 한낫의 派生的範疇로 떠러지고 經濟學의 重要對象은生産關係에서分配關係로 移行하엿다。

그러면 社會的統制型에依한各所得額의 決定에잇서서 客觀的基準이되는것은 무엇인가?이根本問題에 이르러서 그는 그것을 說明하기爲하야 最小限度의 生活費를 意味하는「限界所得」의 理論을 내여세웟다。賃銀은 生産者가 最少한勞働者의 社會的最低必要生活費에 依하야 利潤은 生産者가 最少한資本家의 社會的最低生活費에依하야 決定된다는것이다。

이리하야 經濟學에서『物質的生産』을 逐出하고 經濟를統一的으로 說明할 客觀的地盤을이러버린「스탐조만」은 곳곳내心理學派의 門下에가서 後者의所得理論에 잇서서의「限界效用」의原則을 借來하지안흘수업섯다 이리하야 心理學派의限界效用理論에 對한 그의批判도結局은 無意味한「잔소리」가되고말지안는가?

經濟關係를 그의主觀的일우는 物質的技術的生産과分離하야 單純한社會的分配關係로 取扱하면서도 그의客觀的法則性을 確立할수잇을까? 다시금 疑問이업지안타!

그야어쩨던『社會的統制』國民經濟의『全體性』(?)『理論的原則』(同上)等을말하는 社會派經濟理論이 民族倫理와 計劃經濟에上氣한 오늘날獨逸의 나치스經濟學의樹立에잇서서 重要한 理論的源泉이될것만은 틀림업을것이다 (끗)

今春各學校入學案內 (六)

(詳細는該校에直接問議하시요)

順天公立農業學校
一、募集人員 約五十名
一、申請期日 二月二十五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五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康津公立農業學校
一、募集人員 約五十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五日至二月二十八日
一、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五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新義州公立商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日至三月三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五日間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義州公立農業學校
一、募集人員 約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五日까지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五日間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寧邊公立農業學校
一、募集人員 約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五日까지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五日間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仁川公立商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一月末日
一、試驗日字 自二月十一日至三月十五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 算術

京城向上女子實業學校
一、募集人員 約五十名
一、申請期日 三月二十一日까지
一、試驗日字 三月二十三、四、五三日間
一、試驗場所 同校內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協成實業學校
一、募集人員 約八十名
一、申請期日 三月十五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二十五日至三月二十七日
一、試驗場所 同校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京城電氣學校
一、募集人員 電氣部豫科三百名 土木部豫科百二十名 本科六十名
一、申請期日 三月二十五日까지
一、試驗科目 所見表에 依하야 銓衡

中東學校
一、募集人員 本科百名 豫科二百名
一、申請期日 本科三月二十三日까지 豫科三月二十一日까지
一、試驗日字 本科自三月二十六日至三月二十九日 豫科自四月一日至四月二日

中央基督敎靑年會學校
一、募集人員 中等科 約二百名 工藝科約百名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一、試驗場所 同校
一、申請期日 三月二十日까지
一、試驗日字 自四月一日至四月二日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一、募集人員 約百五十名
一、試驗場所 同校
一、申請期日 二月二十八日까지
一、試驗日字 自三月七日至三月十日
一、試驗科目 國語、算術

新刊紹介

◆게자씨 一月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一八三의二 게자씨社 振替京城五三三一番 定價十錢

◆時兆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淸涼里町 時兆社 振替京城五四七番 定價十二錢

◆佛敎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壽松町四四 佛敎社 振替京城五四八二番 定價二十錢

◆詩人春秋 第二輯 發行所 京城府本町四丁目五 南松堂書店 振替京城一九三二番 定價二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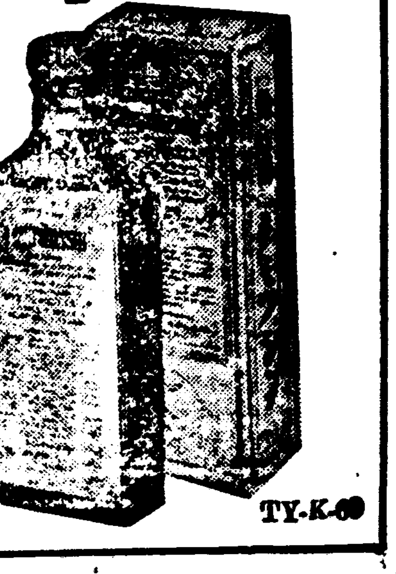
◆朝鮮行政 二月號 發行所 東京市京橋區銀座西七丁目一 帝國地方行政學會 振替東京一三一番 定價五十錢 送料一錢五厘

◆基督敎報 第一四五號(週刊)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六錢

기침에잘듯고 먹기좋은약

무서운기침의流行期가왓읍니다 하로바삐중하게 되기前에 곳처주십시요

맛이좋고 곧낫는약



백일해·홍역에

지밋신은 구미에서유명한「지미草劑」의 대표적제약으로 지미초의 유효성분을 맛쓰흡을에즐은것이니 담·기침에잘듯을뿐만아니라 맛이좋음으로써 약을실허하는어린애라도잘먹게됨으로 더욱유효합니다

그러므로 기침병중에도 가장고통이심하고 알는기간이긴백일해 홍역의 특효약으로써 稱讚과환영을 받고잇사오니 초기에사용하시면 세방이되고 진행중에 사용하시면 경과를빨으게하고 고통이심한밤잠과 담·기침을 곧개이게하야 전쾌를빨으게하여줍니다

三〇〇瓦…一圓八十錢 一五〇瓦…一圓

全道藥房에서 販賣합니다

천식·만성담기침에

「에후에도로지밋신」(エフエドロチミツシン)은 지밋신에다「鹽酸에후에도링」을配合한것입니다 주무실때 혹은 발작전후에복용하시면 그렇게 심하든痙攣性흥분을 가란치며 담을끈고 그르렁거리든것을 끈가란게하야 밤잠을잘주무시게만듭니다

一五〇瓦……一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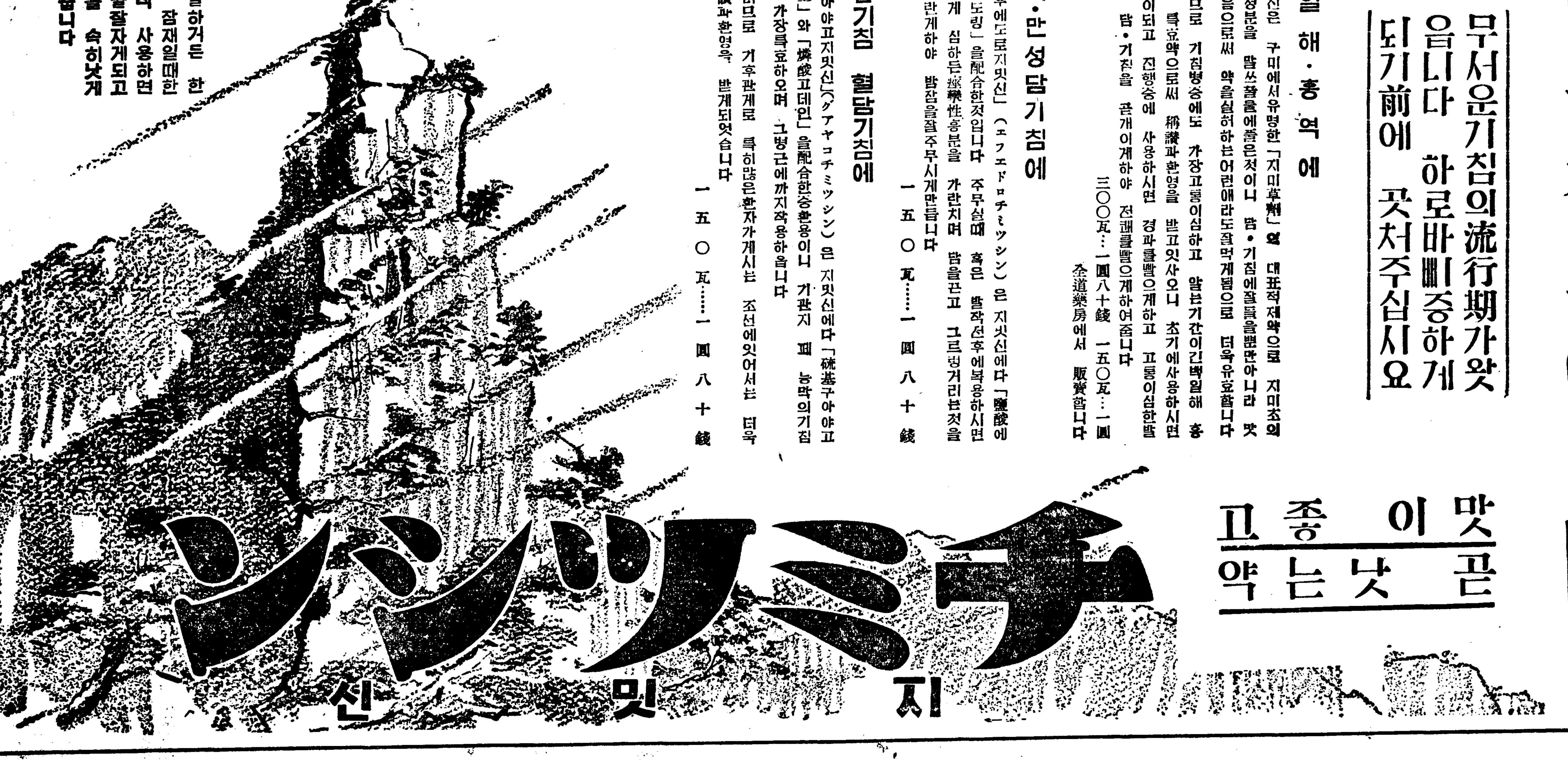
밭은기침 혈담기침에

「구아야꼬지밋신」(グアヤコチミツシン)은 지밋신에다「硫甚子아야꼬加里」와「燐酸코데인」을配合한중환용이니 기관지 폐 능막의기침에 가장특효하오며 그병근에까지작용하옵니다

그러므로 기후관계로 특히많은환자가계시는 조선에잇어서는 더욱 稱讚과환영을 받게되엇습니다

一五〇瓦……一圓八十錢

기침을하거든 한사시 잠재일때한 사시식 사용하면 밤잠을잘자게되고 병세를 속히낫게 하여줍니다



TY-K-60

娛樂

遠征費調達코저 野談·漫談大會
—斯界의巨星四氏出演—
本報讀者特別割引

蹴球朝鮮의 代表팀이라고할수잇는 平壤蹴球團은 今春 四五月頃에 外地遠征의 壯途에 오르려하는데 그遠征費의 一部를 調達하기위해서 同蹴球團後援會에서는 오는 八日 九日 兩日間 午後七時부터 市內 府民館에 野談 漫談大會를 열기로되엿다。出演할 演士들은 尹秋岡 申鼎言 申不出 黃材景等四氏로 斯界의 權威들만 網羅하엿는데 이權威가一堂에 모혀서 舌戰을하게되는것은 稀有의 일인만큼 一般의 興味와 期待를 끄으는바인데 特히 本報讀者들에게는 入場料 五十錢을 三十錢으로 割引하게되엿다 그리고 割引券은 別欄에 揭載되여잇다 그리고 演題는다음과 갓다

一、野談『仙藥如意』 尹秋岡
一、漫談『新春學者大會』 黃材景
一、漫談『愉快한嘆息』 申不出
一、野談『秦相公의十年篆床』 申鼎言

듀비비에 憤然歸佛

메트로와 三個年間 五本을 製作하고 總計二十二萬弗의 契約으로 渡米한 쥬리앙·듀비비에는 그第一回作品으로서 『페페·르·모코』의 米國版을 세들햇는데 메트로 脚本部에서 그 씨나리오에 약간 손을 대엿다고해서 대단히 憤慨한 듀비비에는 그것을 契約違反이라고 憤然히 佛蘭西로 도라가고 마럿는데 이러케되고보니 듀비비에를 끄으러 온다고 가진애를다쓴 米國과의 關係는 아주永遠히 袂別되고 마는모양갓다고한다

巴里의暗黑街 市內黃金座封切

東和商事、파테·나탕 映畫인 『巴里의暗黑街』는 모리스·투르누르의 脚色監督으로된映畫인데 五日부터 十日까지 市內 黃金座에서 封切上映中이다。 ←

딴스音樂의 人氣調査
首位는『폭스、토롯트』

딴스 반드의 指揮者로서全歐에 名聲을 날리는 에듸ー포ー어氏는 일즉부터 딴스音樂의 人氣調査를 行하고잇섯는데 最近 그結果가 判明되엿다 포ー어氏는 이調査를하기위해서 歐洲各國의 딴스愛好者 千餘名에게對해서 質問을 發하엿든바 그回答을 集計해본結果 가장人氣가 잇든것은 폭스·토롯트·第二位가탕고이고 그다음이 왈쓰라고하는데 數年前까지도 全歐의딴스愛好者들사이에 白熱的人氣를 博하든 룸바는 벌서凋落時代에드러갓다고 한다 딴스音樂에잇서서의 愛好의變遷은 特히 激變해 일직이非常한 人氣를 끄을든 루·스렌、란사ー즈、개롯프、룸가等은 어떤調査에는 거의全然無視되고 甚한例로는 어러한音樂이잇는것까지 모르는사람이 만헛다고한다 그러나 어려한 것들중에잇서서 依然히 變치안코 人氣를가진것은 왈쓰로서 딴스音樂으로서의 왈쓰의 生命은 벌서百年以上에 밋첫다고한다

邊地로低回하는 白의窮狀만增大
中原을敵에게讓渡함은 棋道의緊張味가缺如

黑八一卯의五로 다시死黑에加手함은 모다더中央의右翼을堅固히하면서 그勢를擴大하야 右邊白地의侵入을 準備하는일이어니와 그러타하면 黑八五丙의一一을 丑에五에두어 白으로하야곰 卯의七로 應手케하고 黑卯의八 白辰의八 黑辰의九 白巳의八로 酬應하야 이方面의일을마친뒤에丙의一一로 侵入하는것도 늣지아니할듯하다그리고黑이먼저 丑의六으로 白이나오는것을 막지못하야다음機會에白의中原을 侵入하는便宜를 맨드러주는것은 可惜한일이 아니라 할수업다 黑八五丙의 一一은 前回에서 말한바와가티 白八〇을 乙의一四로 逋하지말고 一三으로虎口를지엇드면 侵入할수업는것이오 구태여 侵入하면 別圖와가티 黑은 先手를빼길危險이잇다 (參考圖入) 그리하야 黑이 물러진一點을讓하면 先手를빼기고 그러치아니하면 白의中央進出을 넘녀히 阻止할수업다 그리고左邊中央의白은로할지라도 白八〇을乙의一四로連하야 構築한것보다 큰것을이저서는안된다 白八六丙의三은 前回에말한바와가티 이左邊下隅黑地中에서는 生을 圖할수업스나丙九의友軍과 呼應하야 그의左邊下隅로 小斜走함을 贊助하기爲한것인데 그러치아니하야도 그는 可能한일이니 하나의怯虞를 업새버린것뿐이오다음必要는업다 黑八七丁의三은 常道의應手어오 白八八의七 黑八九乙의三 白九〇丙의七 黑九一丙의六은 모두 通常酬應이다 또白九二丁의八 黑九三戊의七도 역시그러하다 白九四丁의一一은 이方面의白地가兩切함을 救하기 爲한것인데 그리하야 中原大場을 黑에게 明渡함은 棋道의 緊張味를缺한일이어니라 할수업다 그를 戊의一〇으로 小斜走하야 中央의黑地를 破壞하고 또左邊上隅의 黑地로서 侵入하면 비록黑은 乙一五以下의 白三點을 包圍하야 그間의黑戶를짓는다하야도 中央의左邊上隅의 黑地가 破壞된 損失을補償치못할것이다 黑九五丁의 一一은 白九六丙의 一二는 어쩔수업는酬應이데 白八〇의失手로 말미암아여는邊地로만넘어가지아니할수업는白의窮狀은救할수업다

國手爭霸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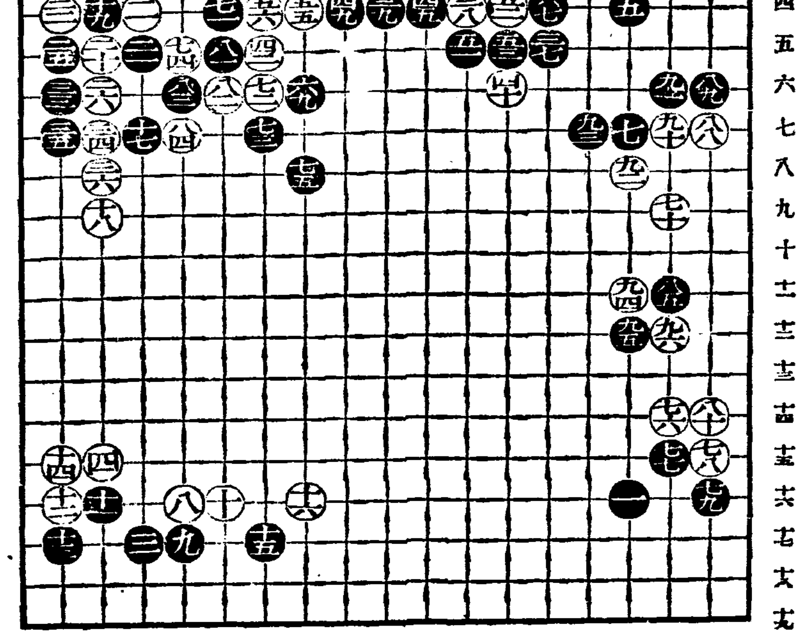
本社獨占

白 盧史楚
黑 任佑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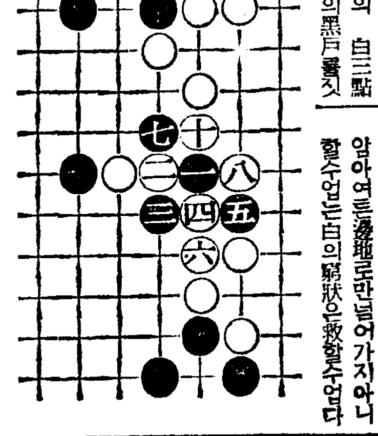
●八一 卯의五
○八二 卯의六
●八三 辰의六
○八四 辰의七
●八五 丙의十一
○八六 丙의三
●八七 丁의三
○八八 乙의七
●八九 乙의三
○九〇 丙의七
●九一 丙의六
○九二 丁의八
●九三 戊의七
○九四 丁의十一
●九五 丁의十二
○九六 丙의十二

…死 點…

●九七 巳의二



(參考圖)



七日 (月曜)

◇午前六時童話『비대의한강잔치』

커트說明 카롤·롤바드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尹石重
◇同六時三〇分 經濟市況 李晶燮
◇同七時四〇分 講演『社會敎化에對하야』 李東熙
◇同八時一〇分 大琴獨奏 一、 二、 朴鍾基 杖鼓 池龍九
◇同八時二〇分 (東)室內樂 (定期演奏第二回) 七重奏曲変ホ長調作品二十 베ー토ー벤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알레그로콘브리오 第二樂章 아다지오칸타빌레 第三樂章 메누엣트 第四樂章 主題와變奏曲 第五樂章 스켈초 第六樂章 終曲ー안단테콘모토아라마르차 ー프레스토 빠이올린 松本善三 비오라 板橋順 콘트라바스 高橋卯七 크라리네트 辻井富造 파곳트 上田仁 호른 谷中純策
◇同八時五〇分 連續野談(第二夜)『龍宮一醉酒樓萬發書』 申鼎言

第一放送

◇午後六時 (城)하ー모니카
◇同六時二五分 (東)支那語
◇同七時三〇分 (大)歌謠
◇同七時四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物語
◇同八時二〇分 (東)室內樂
◇同八時五〇分 (大)義太夫

八日(火曜)

▲午後零時五分(東)管絃樂 一、『파우스트의劫罰』中에서 배르리오ー즈作曲 가、匈牙利行進曲 나、妖精의춤 다、鬼火의춤 二、歌劇『제킹겡喇叭手』의主題에據한幻想曲 니킷슈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坂西輝信
▲同一時一五分 家庭時調『春節과운病』 赤十字病院 高永穆
▲同六時(平)어린이를爲한室內樂 一、金과銀 레하ー르作曲 二、아단테 하이든作曲 三、軍隊行進曲 슈ー베르트作曲 四、愉快한農夫 슈ー망作曲 五、다뉴브江의물결 이빠노빗치作曲 六、들장미 슈ー베르트作曲 宋濱트리오 빠이올린 金大鎬 첼로 玄海忠 피아노 李南浩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話(八) 咸漢獸
◇同七時四〇分 講演『新聞經濟面이야기』(一) 東亞日報社 金弘鎭
◇同八時一〇分 連續野談(第三夜)『地中神仙幾千年』 申鼎言
◇同八時四五分 피아노獨奏 一、나뷔作品二 슈ー망作曲 가、序曲 나、프렌스의씨모 다、빼ー보ー라、終曲 二、스케르쏘 作品十六 第二 멘델스존ー作曲 三、洪牙利幻想曲 리스트作曲
◇同九時一〇分 歌詞 一、將進酒 二、漁夫詞 安鶴仙 金花香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管絃樂
◇同六時(山)童謠
◇同六時二五分(東)講演
◇七時三〇分(東)歌謠
◇同七時四〇分講演(自天津)
◇同八時(城)物語
◇同八時四〇分(城)蒙古音樂
◇同九時(東)講談

野談·漫談大會
入場料 五十錢을 三十錢으로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場所 府民館大講堂
時日 自二月八日至九日 午後七時
一人一枚限

新發賣

十錢으로 病을고치는時代가왓다

어젓은日本藥學의勝利입니다。大學目藥本舖의研究部에서多年研究한結果는、어려케 잘듯는藥이 모도『어면것이나 一個十錢』이라는놀라운廉價로賣出되엿다。그것은實로在來의一般藥價의半額도못되는廉價외다。貴下의求하는藥은어면것이나十錢입니다 얼로부터는누구든지十錢을가지고 藥店으로가서『大學十錢家庭藥』(二十種)中에서自己病에適當한것을擇하야、곳손쉽게고칠수잇습니다。

어려케잘듯는藥이 어째서싼가

1 藥學博士大谷文彌氏를爲始하야多數學徒의眞摯한研究
2 科學的生產設備와最新의機械能力을涵擁하는大工場
3 合理化한大量生產과統制配給에依한經費의節減
4 此等의綜合結果와努力에依한最低價

◉大學十錢家庭藥 疾病에따라二十種이잇다

●胃腸의疾病에는 大學胃腸散 大學胃錠 大學下劑 大學下痢止錠
●驅虫劑로는 大學驅虫錠
●止痛藥으로는 大學頭痛錠 大學齒痛錠 大學腹痛錠
●感氣藥으로는 大學感冒錠 大學せき止
●暑中藥에는 大學淸涼劑
●外用藥에는 大學皮膚藥 大學外傷藥 大學痔疾藥 大學水虫液 大學メンソリクム
●婦人病에는 大學婦人藥
●小兒의病에는 大學奇應丸 大學小兒かぜ藥 大學小兒せき止シロップ

▲各藥店에잇슴

大學十錢家庭藥

二十種잇다

一個正價十錢 (二十種各一個식 詰合函도잇다)

大學目藥本舖
大阪 參天堂株式會社 發賣

中部版

各郡에指導圃設置 棉作을積極獎勵
補償制度로써栽培農家保護 戰時의重要國策으로

京畿道의棉花增産計畫

전시체제가 요구하는 중요국책의하나인 남면북양(南棉北羊)은바야흐로 전조선적으로 확대되여 전면전양(全棉全羊)으로되여가고잇다 그하나로 경기도면화증산계획을보면 작년도부터착수한것으로 총독부로부터 할당된도내경작면적 일만팔천정보를도계획에의하야 다시넓펴 이만일천정보로하고 소화십칠년까지에완성할계획임으로 현재의 일만사천정보에 비하야 칠천정보나 넓피게되는세음인데 반당(反當)일백이십근 목표임으로총 수확량은 이천오백만근에 달할예정이며 그중적어도 일천만근을공동판매로하야 방적회사에 제공케하게되리라고하는데 그공판경로는 각도에 지정회사가잇서미국면화(米綿)시세에따라 농가에서산출한면화를사서 그회사에서 조면(繰綿)을하야 방적회사에·팔기로되엿는데 십이년도실적은 도내총수확량일천일백륙십만근에서공판된량이사백삼십만근으로소화십일년부터공판을시작한뒤로 이태동안에겨우이백이십만근이든공판량이 이태뒤에는일약의사백만근대를 보게된것은 대성공이라고하며 더욱경기도면작이 경이적자료를 제공하고잇는것은처음도내에는 륙지면(陸地棉)재배가불가능하다고 밋고잇섯슴에불구하고 십이년도에 처음으로련천(漣川)가티 노픈지대에다가 륙지면을심어 첫해에 일약일백십륙만근이나 공판을하게된 기록이다

재배를장려하는 방법으로는총독부로부터 조호종자의 배급을바더 채종전(採種田)을 만들어그종자를 부루워서각경작농가에 노나주는외에 십이년도 부터는 도내에서 열두군을 장려군으로 선정하야 그중 매년네군식을 지도군 (指導郡) 이라고하야 국고보조를어더 한군에사설정보식의 지도포(指導圃)를만들어 재배기술의모범을 보히는등 십이년도보조총액은 사만삼천원에달하며 십삼년도에도 면작장려비(棉作獎勵費)로 약오만원을예산에 계상하엿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장려방법으로는 보상제도 (補償制度)를 설정하야 재배농가로하야금 가격폭락에대한 불안을업게하는것인데 종래면화한근갑시칠전아래떠러지는때 칠전이될때까지 보상금을 주어왓스며 십삼전이상으로 비싸진 때에는 비싸진갑과 십삼전까지의 차액(差額)을 적립(積立)케하야 오던것을 십삼년도부터는 각각구전과 십오전으로 인상시켯다

伊川邑禮拜堂에서 査經會와傳道大會

【伊川】강원도 이천읍내 기독교감리회에서는 지난이일부터 [illegible]목사를 청하야매일밤마다 일주간 대전도강연회를 개최하야 대성황을 이루고잇슴 특히 이천지방(伊川、金化、新溪、平山)의 기독교인들의 성경연구와 신앙생활의 도대를 강화코자 대사경회(大査經會)를 일주간 삼일부터 개최하야 삼백여명이 모히여 성경공부를한다고한다

開城花柳巷에서도 妓生"개평"制撤廢
舊正初부터嚴重實施

【開城】작년사변을 거기로 국도의 불경기바람에 휩쓸려 비명을 지르고잇던 개성화류계가 올음정초에 드러서는 고만 정월는바람을 혼자만난듯 밤아흠에 시만되면 료정은 전부 만원이여서 손님을 사절하게되고 기생이라 명색한 아가씨들은 전부 불리게되여 한세월만난 그들의 경기가 모두 고등관대우급이라는데 이때를 당하야 기생의 보히지안는 세도가 대단한편이 풍기가 전보다 더 문란해질것을 미리간파한 개명권번(開明券番)에서는 그들의 풍기숙청에 만전을 다하기위하야 전번삭회를통해서 금년정초부터는 단연"개평"제도를 철폐할것을 선언하는동시 위반자에게는 오일간 영업정지를 명햇스며 일반료정"뽀이"에게도 "개평의유혹"을 밧지말라고 엄중히 알리는 동시에 당장내 렷다한다 그리고 의복까지도 어데까지나 예기다운 정중(?)을 나라내기 위하야 남치마(藍[illegible])를 입히지고리로 자지갓 갑을 달이잇게 엄하야잇다한다 이는 그간 부렴풍기가 일부 덕업서졋다고보겟스나그 때문에 료정풍기는 일소되여문란한 적이업서 정부진『나지미』와도 좀 멀리간관을 못맛게되여 인끼가 줄어젓것을 염려하는편에도 잇서 매일밤 뇌는 기생도 잇는모양이근풍기로보아 적년의 폐풍을청소하얏다고볼수잇다한다

工都仁川建設의 緊要意見을披瀝
五日、工業俱樂部總會席上에 ―永井府尹이部員도激勵―

【仁川】대공업도시를 건설하기위하야 영정(永井)인천부윤은부내에잇는 공업부원들을 지난오일오후육시에 부윤관사에 초대하야 좌담회를 개최한다함은기보한바와갓거니와 당일은 부내각공장대표를 비롯하야 공업부원사십여명의 출석으로 성대한좌담회를열고 공업진흥책에대하야 영정(永井)부윤의대포부를 피력하야 공업부원의 분기를 요망하얏다하며 포부의내력은 대략아래와갓다

銃後의 第一線은 生業報國이라함은 各位의 周知하는바이지만 從來朝鮮은 北朝鮮을重要視하얏스나 事變後西朝鮮도漸漸重視하게되여 그中心地는仁川으로서 將來商圈을빗내게約束하게되엿다 一面京仁一體經濟뿌럭도 實行期에들게되여 京畿道産業調査會에서 立案한 諸案件도 旣히 要路에要求하고잇스나 거기에대하야京仁兩市는 勿論 그中間에工場地帶를 建設하야 經濟的産業道路에敷設並 仁川港을朝鮮의母港으로하고 其外水産을始作하야 各般의施設도 大略立案되여 中心으로함案도 仁川을 잇다!! 電力供給問題도 容易히 解決될希望도잇는고로 仁川은 大工業都市로서 恐慌이라고불수잇다 여기에對하야工業中心으로서 仁川과北支과의關係를考慮한즉 內地에서가는製鋼業은 仁川으로서 勃興치안흘수업는 國策上 가장適當한生業이라고한다 內鮮融和의見地에따라 製鋼業은 內地로부터 人的資源을 增加하야懸案의 工業用水問題도 解決의曙光을볼것이다 그것은 三四萬圓으로 될줄로생각하며 將來工業專用水道를 敷設하라면 二三百萬圓은 들것이나 이것은府民에게 負擔지안을 成案이다 交通運輸의方面은 京仁鐵道를複線으로하고 다시貨物專用線을 敷設하야三線路로할計畫이나 이것도難事는안이다 要하면大工業都市 仁川을建設하는데는 (一)工業用水道敷設 (二)工業道路開鑿 (三)鐵道線路의完備 (四)工業港建設 四大條件의實現이急務나 一朝에實現하기는 困難한고로 一步一步完成하는데는 各位協力을바라는바이다

以上 力說은 俱樂部員의 厥起를 論한데對하야 加藤委員長은府尹의 激勵에 感謝의答辭로 各種工業의 振興을 圖謀하는데는 需給關係를 十分考慮하야 同業者間에 摩擦을 防止할必要가 잇사오니 府尹도이點에 留意하야 指導와斡旋을願한다 答辭가 끗난後 晩餐會에 드러가 各自가 工業振興策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하고 가장意義잇게 午後十時頃 散會하얏다

紀元節을卜하야 社會團體를擴充
京畿道內卅二團體에對하야 四千餘圓을國庫補助

총독부에서는 전조선각도에잇는 사회교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의 지령을 오는 십일일기원절에 하기로 되엿는데 경기도에는농촌청년단 열여섯 도시청년단셋 부인단체일곱 지방개량단체넷 교화단체련합회 체육협회 도합 서른두단체에 대하야 한단체에 오십원내지 이백원 합계 사천육백구십원의 국고보조를 밧기로 되엿다

伊川各校學年延長

【伊川】강원도이천군에서는 군내각보통학교의 학년연장에 대하야 일반군민이 다가티 최선의 노력을하고잇는데 특히금년중으로 월암(月岩)판교(三橋)학봉(鶴鳳)의 세공보교의 학년연장을 비롯하야 방장면(方丈面)제이공보교의 신설과 아울러다년간 문제를 거듭하고잇던 선암간리학교(仙岩簡易學校)가 오는이월중순에 개교식을 할려는 교육이천에 신춘명랑한 소식을 전하고잇다

十五日間의叺生産 四十二萬枚突破
江華郡各農村에서

【江華】한동안 릉밍으로 봉쇄되다싶이 판로가드물당하고잇서 대외적 판거가드무러가든 강화도에서는 그간생업보국의 일념이 발로되엿는바 지난일월십일일부터 시작하야동월이십구일까지에 생산된"가마니"수량은 무려 사십일만오천이백오십이매로써 내역을 보건대 염입(鹽叺)이 십팔만사천일백칠십륙매요 공석용(空石用)이일만칠천칠백팔십륙매요 비료용(肥料用)이십일만삼천이백구십매인바이가격만 하야도 오만여원에달한다는바 금년도의 풍산파시세의 호조로인한 농촌경제의윤택은"가마니"생산으로 더욱츠호경기를 나타내는반면 소작인측에서는 종래밧지나흐던"집"(藁)을 한보에(四束)삼전식으로 회사하야 판입하는자가 만허젓다고한다

開城紅裙黨의 檢黴制度改善

【開城】소위이름조흔 예기(藝妓)라면서 매주일마다 몸검사를하지않으면 기생영업을 못하게되는 개성낭자군들——이가티 매춘부나 다름업는대우를 바더가며 지내게된다는것도 오늘날그들의가진비애라 보겟거니와 이것은 국민보건상 화류병을예방키위한 경찰당국의 방책이니어찌할수업는 일이라하겟다 그러나 그들이 한달에 네번식 몸검사를 마지려가는데잇서서 번화한 상가인 서본정(西本町)통대화정(大和町)통을지나 도립의원까지 떼지워 몰려다니게된다는 것은 그들의 면목을 위하야서나 또는개성사회의 풍기문제로나 어떠한 개선책이잇스면——하는것은 비단그들의 희망뿐이아니고 일반의자간에 불평이엿든것인바 이번개명권번(開明券番)당국에서는 예전야명권번(夜明券番)구사를 약이천원의공비로 개수하야 이곳을 검매소(檢黴所)로결시하고 오는검사일부터는 이곳에의사가 직접출두해서 검사를하기로되여 그들의적년숙원이든 이대우개선문제가 오늘에야 해결을 보게되엿다한다

繼續工事와아울러 新幹線道路着工
總工費一百二十二萬圓으로 京城府에서新年度에

경성부에서 소화십이년도부터착수한 경성부 간선도로개수공사는 현재 왕십리、전관교(往十里、箭串橋)영등포、당산정(永登浦、堂山町)청량리、왕십리(淸凉里、往十里)의 세간선도로는 이미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여잇고 그외 봉래정 이정목、한정(蓬萊町二丁目、蛤町) 상왕십리、돈암정(上往十里、敦岩町) 동소문、돈암정(東小門、敦岩町)의 세간선도로는 용지매수를 다하여노흔터인데 신년도에도 총경비일백삼십이만원을 드려서 전기각선로의 계속공사와 아울러 아현정(阿峴町)에서 로고산정 (老姑山町)까지와 영등포정(永登浦町)에서 수도선(水道線)동부 서부까지와 신당정(新堂町)한남정(漢南町)에서 각각 시가지계획지내까지의 각간선도로개수에 착수할터이라고한다

滿都의人氣노픈 野談과漫談의밤
八、九兩夜府民館에서開催 本報讀者는特別優待

동양축구게의 왕좌를 차지한 남긴 평양축구단에서는 금춘을 천진(天津)에 원정하야 패적을기하야 보람잇는 활약을 꾀하고저 동축구단 후원회에서 그원정비조달에 부심중이든바 야담(野談)만담(漫談)계의 인끼를 독차지하고잇는 유추강(柳秋岡) 신정언(申鼎言)신불출(申不出)황재경(黃材景)제씨의 찬동을어더 신춘야담 만담대회를 팔일과구일밤일곱시부터 부민관(府民館)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되엿다 이모든이야말로 원정군을 도읍는데 의의가잇거니와 이른는데마다 청중을 도취케하는네명성이 한번단에 일제히 오르게되엿슴은 공전의일이라 장안의 인끼를 북이끌고잇다 이날입장료는 대중료금으로 오십전을밧기로 되엿스며 본보독자에게는 특별할인 하야 삼십전식밧기로 되엿는데 우대권은 본지 제육면에게재하엿다 (사진 상으로부터신정언씨 황재경씨 유추강씨 신불출씨)

三坂秀英學院의 十一周年記念會

시내삼판통(三坂通)에 삼판수영학원(三坂秀英學院)에서는 오는십이일로 창립십일주년을마지하게되엿다한다 이날기념하기위하야 십이일 오후일곱시반부터 본사대강당에서 그학원아동의학예회가잇다는데 사회자는 백락정(白樂貞)씨라한다

地方人事

▲金舜基氏(本報汶山支局長)五日自宅에서遭內艱喪

長篇小說 林巨正 【44】
洪碧初 作　金熊超 畫

소굴 (十二)

청석골적당이 송도서 백주에 살인한뒤 조정에서는 토포사를 내보내서 적당을 토멸(討滅)지키자는 공논도잇섯고 토포사를 내보내면 민폐(民弊)만 더되니 고만두고 개성류수와 황해도관찰사를 각별신칙하야 적당을 체포지키자는 공논도 잇섯다. 어느날 령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윤원형과 대사간(大司諫)리량이 편전(便殿)에 입시하얏슬때 우에서 조처할 방법을 하문한즉 원형은 토포사 내보내기를 주장하고 량은 토포사 고만두기를 주장하야 각기 주장을 세우라고 말을 다투는데 우에서 사가로치면 외숙(外叔)인 윤원형은 끄리고 중전의외숙 리량을 특별총애하는 중이라 량의 주장을 올타고 말슴하야 원형이 무류하고잇다가 합문(閤門)밧그로 물러나와서

『적당이 나라를 떠가면 내나라를 떠가나』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무엇한말을 입밧게 내기까지하얏다 권신(權臣)들이 서로 틀개를 놋는중에 조정공론이 이것저것 다 무력하야저서 한동조처가업시 달포를 지내왓다

적당이 조판으로 가장(假裝)하고 봉산군수를 노략한일이 우에까지 입문된때 우에서 상공과 령부사에게 적당이 횡행하는것을 가만두고보는것은 국가의 수치니 빨리 조처할방법을 상의(商議)하라고 하교(下敎)를 나리어서 상공과 령부사가 정부청(政廳)에 회좌(會座)하야 다 상좌에 령의정 상진(尙震)이 안고 그다음에 좌우정 안현(安玹)이 안고 또 그다음에 우의정 리준경(李浚慶)이 안고 령중추부사 윤원형은 말좌에 안젓다 세력조혼 윤원형이 정부좌차에 말좌소판이니 유명짜한장님 홍계판(洪繼寬)이 윤원형의사주를 보고 령의정이되면 불길하다고 말하야 윤원형은 령의정을 고사하고 령중추를 자원하야섯다 상좌의 령의정이 무거운 입을 열어서

『령부사대감 말슴하시지요』 말하고 좌우의정과 한께 말좌를 바라보니

『소생에게는 뭇지마시구 어서 하고 윤원형은 도리머리를 흔들엇다 무엇한말을 입밧게 내든 배짱이 아직도 남아서 도리머리를 치게한것이다 령의정이 말하라는 눈치로 좌의정을 보고

『우에서 윤종(允從)하십디다』 하고 말하얏다 말좌의 령부사가 먼저 일어나가고 상공들도 좌차대로 차차일어나서 정부의 회좌가끄티 낫다

종손도류수와 황해감사가 상감의 밀유를 밧고 군병을 조발한다는소식이 들복가리 청석골로 들어와서 꺽정이이하 여러두령이 한자리에 모혀안저서 각처소식을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이야기들하는데 출모발려(出謀發慮)를 마터노코하다시피하는서림이가,

『우리는 차차 형편을 봐가며 자리를 옴기드래두 주체구진 안식구들만은 먼저 이천팔복산으루 보내두는것이 조홀것갓습니다』

하고 말하니 딸둘두령은 말의레 뒤밧는 서림이의 말이라면 항상 돈업고 파오주까지 희한하게 찬동하얏다

『그러면 소생이 탑전에 드러가서 황해 평안 강원 삼도관찰과 개성류수에게 각각 밀유(密諭)를 나리시도록 구계(口啓)로 알외고나오리다』

령의정만 승지(承旨) 사관(史官)들과 함께 합문안에 드러갓다가 얼마뒤에 다시 정부로 몰려나와서 좌우의정과 령부사를 보고

『조흡니다』에 무럼대고

하고 답하얏다

답아 듯지안코 사인(舍人)방에서 나오는 풍류소리와 기생노래를 듯고잇다가 령의정 못는말

물아보는데 좌의정은 눈을 아래로 깔고 입을 다물고잇섯다

『우상대감 먼저 말슴하시요』

『소생의생각에는 황해감사와 개성류수가 비밀히 기일(期日)을 정해노코 각각 정병(精兵)을 거느리고 출기불의(出其不意)로 적굴을 엄습하면 적당을 일거에 섬멸(殲滅)할수잇슬줄압니다』

『인제 대감말슴 좀 들읍시다』

령의정이 다시 좌의정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재촉하얏다

『지금 우상말슴이 조흡니다 그러나 황해도와 개성서 출병들할때 평안(平安)강원(江原)량도(兩道)에서 지경을 직혀서 도적의 도망할길을 막으면 더욱 조흘것갓습니다』

령의정이 고개를 몃번 끄덕인뒤

『령부사대감 지금 두분대감의 말슴이 어떳습니까』

윤원형의 의향을 물엇다 윤원형은 좌우의정의 의론을 귀

漫謠 王서방恋書 金貞九 流行歌(一二〇九五) 남우심하오 李蘭影 오케—레코—드

專賣特許 No. 99982 實用新案 No. 129299 OKS 類似品ニ御注意 絕對他ノ追從ヲ不許 全國代理店ニテ御買求メ乞フ レープー割

百日咳에 小兒用 고데스 東京·大阪 笹岡

幼兒の便秘に 勿論、大人의常習便秘에도! 滋强飲料 カルピス —理由— 乳酸菌飲料水이므로! 乳酸菌은— 1 腸의機能을整調하고 2 腸內의異常醱酵를防止하고 3 胃腸內의病原菌을殺滅시킵니다

朝報案內 募集 今般本社事業部… 朝鮮警察新聞社事業部 有給社員招聘 京城府…

絹布·綿布 現金都賣 東順德 地方人士歡迎 振替口座京城一四九四番

淋疾에는 安治淋 京城藥園町 共生藥業株式會社 振替京城三二〇二 電話光③長一二五七四

H.H.H. サンエッチ 靴クリーム 靴を丈夫に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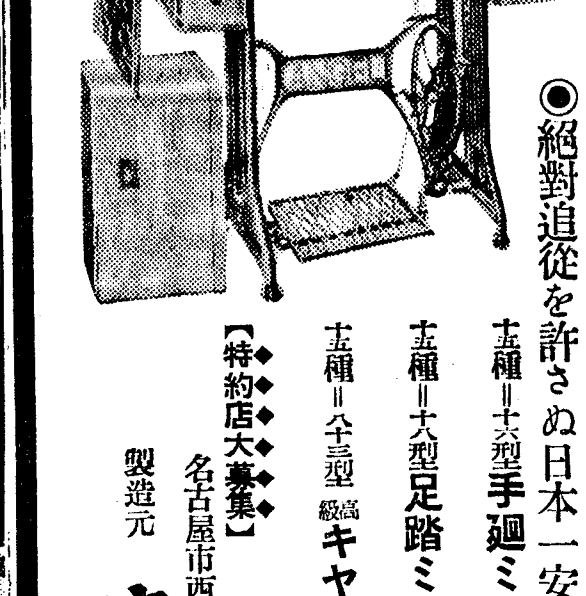
眼科 院長 金廣業 大明医院 平壤竹典里(和信東隣) 電話一三八五番

간질 名記入申込者에急報함.

商標 고초가루 都壽 金山府草梁町 金千壽商店製粉部

宿醉 ノーシン 若劇

八日封切 人生競馬 マドリッド最終列車 パラマウント スキー映画の王座『雪煙』 東和商事特作品



優秀保險付 國産ミシン 大特賣提供 ◉機械の性能と運轉輕快で賞讚を博し ◉絕對追從を許さぬ日本一安價で提供す 十五種=十六型手廻ミシン機……五十九圓五十錢 十五種=十六型足踏ミシン機……七十八圓五十錢 十三種=八十三型 高級 キャビネット式……九十八圓 【特約店大募集】 名古屋市西區傳馬町 製造元 東西商事社

官認 朝鮮無線工業學院 生徒募集 京城府蓬萊町一의八三 電話本局三〇六五番

自衛를爲하야 國에防共 腹에防虫 虫退治 マクニン 마구닌 먹기쉽고 잘듯고 값도 헐합니다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經濟解說 國家總動員法案 ③

貿易統制

政府는 다시 本法案이 實施케되면 戰時에는 輸出入에 關한 一切의命令權을 가지게된다 現行의輸出入臨時措置法이 今番事變의 特別法인것과는 相違하며 또 勅令으로써 命令을 할수잇는範圍가 자못 廣大하다. 現在의 輸入制限과 輸入禁止 其他貿易管理의 境遇에 依하야는 貿易國營——蘇聯과가티——도이條項으로서는 可能한것이다.

政府는 戰時 또는 事變에 際하야 國家總動員을 爲하야 必要한때는 勅令이 定하는바에 依하야 輸出 또는 輸入에 關하야 必要한 命令을할수잇다고 規定되어잇다 그리고 또

(一) 輸出稅 또는 輸入稅를 課하고 그增加減免을할수잇다

(二) 總動員物資의 輸入業者에 對하야 原料材料의 一定數量을 保存시킬수잇다

價格統制

以上、各經濟部面의 强力한 統制外에 다시政府는 本法案에 依하야 左의價格에 關한 必要한命令을 戰時段階에할수잇는것이다

(一) 物價

(二) 運賃

(三) 保管料

(四) 保險料

(五) 賃貸料

(六) 加工賃

(七) 其他의價格

이러한價格에 對하야必要한命令을가지고 또賃銀에 對하야서도 必要한 命令을 할수잇스므로 이것은 完全하고 徹底한 價格統制權의 保持일것이다.

言論機關統制

以上의政治、經濟全般에 亘한 廣汎한 權限取得外에 言論機關에對하여서도 또 自由의 權限이 許容되어잇다.

(一) 新聞紙 또는出版物에 對하야 國家總動員上 支障이 잇다고認定하는 事項의揭載를 制限또는禁止

(二) 前項의制限 또는禁止에違反한 事項을 揭載한新聞紙 또는出版物의 發賣及頒布禁止

(三) 그新聞紙 또는出版物의 刻版及印本의 差押

(四) 新聞紙의發行禁止

法案의影響

어떠한國家라도 非常時에際하야 要求하는것이 國家總動員法案이고 이外에 補償規定과 罰則의規定이 잇는 것이다.

이法案은 그것이公布되엇다고해서 곳그權限이 發生하는것은아니다. 總動員計劃에關한 部分을除하면 戰時또는 事變에際하여서만 發動되고또 그것도 勅令으로써 定할수잇는것이다. 그런때문에 法律이 制定되엇다고해서 곳國民이法律의影響을 밧는것은아니다.

그러나우리는現下의 國際情勢를 考慮치안흘수가업다. 日本을 圍繞한 東亞의 國際關係는 漸漸緊迫한 情勢를呈하고잇다. 이國際關係의 危機는 一步나아가 準戰時情勢의 慢性化를 招來하고 事變의恒常化를 招來한다고 생각치안흘 수가업다.

緊迫하면 事變이라고 부르는時勢의 平常에比하야 長期化하는것은 現下日本을圍繞하는 國際關係로서 容易히 豫想할수잇는것이다. 滿洲事變에서 支那事變에 勃發한 近年의 國際關係를 回顧하면 누구나 否認할수업슬것이다.

同時에또 이러한 事變의慢性化가 實로 國家總動員法과가튼法律을 要求하는것으로 事變의 恒常化는 本法律에 許容된 政府의 强大權을 自由로發揮시키는 機會의 增大를 意味하는 것을 알지안허서는 아니 된다. 即本法律에 依한 政府의 自由로운 命令은 戰時 乃至事變中이라는 例外的一時的인 事實로서 輕視할수업다. 公知하는바와가티 軍部에서는 從前革新的인 空氣가相當히 濃厚하엿섯다. 이러한內容을가진 法律을 運用함에當하야 누구나 이 革新的인「어떠한것」과 結付시키고저하엿스나 本法의 實施에는 어떠한革新도 豫想되어잇지 안타. 本法律은 어떠한것이나 現存의 資本主義를 保護하고 資本家의 利益을 保護하엿스며 資本主義의 範圍도 考慮하야 여러가지로 統制를 加한것이다. 이것은 모두 內容을 檢討하야보면 極히明白하다 그러나 그런데도不拘하고 上述한事態의 慢性化에 따른 國際情勢로보아 本法律이 「팟쇼」的인 傾向에 利用되는 境遇는 充分히 想像되여 잇다. 政府政治家와 資本家階級이 異常한 關心을 本法案에 가지는것은 이것때문이다.

本法案은 電力國家管理案과 共히 日本의 政治動向을 決定하는點으로도 重要한意味를가진것이다 ——(了)——

生產力을大擴充

軍需民需必要品豫算樹立 對外國內諸計畫을再決定 長期戰對備·大綱成立

【東京】長期戰에 對應하는 我國經濟의 生產力擴充에 對하야서는 政府는 미리부터 硏究中이엇섯는데 右計畫立案의 要綱은 大體다음과가튼것이다 어 根本的細目에 亘한 計畫樹立에 伴하야 一月中旬 大藏省 商工省의 折衝으로 大體決定을 보앗는데 本年度輸入計畫金額은 或修正될지도 모르게되엿다

即 計畫立案의 要綱은 左와如하다

一、軍需及民需必要品의 豫算을 樹立함

一、이에必要한 物資의 生產力擴充計畫을 定함

一、上記計劃에 要하는 收入及國際收支計畫을 求함

一、그對外決濟能力에 應하야 다시消費節約及 代用品使用의 國內的諸計畫을 再決定함

此等計畫의 立案에 對하여서는 目下各省共히 急速한 準備를 進行하고잇는 模樣으로 늣저도本月末乃至三月上旬頃에는 細目에 亘하야 決定을 볼것으로 同案具體化에이르기까지에는 大體暫定的輸入計畫에 依하야 爲替許可가 遂行되리라한다

輸出振興應急策

昨年度實績五割까지無許可 輸出原料輸入許可方針

【東京】事變下에 輸出振興策에 對하여서는 旣報와가티 企畫院에서 輸入과가티 考慮할것이라고 그根本的 具體方策의 樹立을 急히하고잇는데 大藏省에서는 輸出原料의 輸入을 圓滑케하고 輸出振興을 圖謀하자는 意味에서 그應急對策으로서 棉花羊毛其他 重要輸出原料의 輸入에對하야 左와如한 方針을 決定하야 當業者에게 內示하얏다

一、重要輸出原料의 輸入은 昨年度實績의 五割까지는 當局의許可를 엇지안코하여도조타

二、그以上의 輸入에 對하여서는 輸出確定分에應하야 考慮하고 適當한 處置를한다

가한다 또旣報한바와如히 一定한 輸出量以上으로 輸出한者에게는 次年度에는 超過輸出額의 멧퍼-센트의 原料輸入增加를 許하는 方法도 考慮되어잇서 目下大藏當局과 貿易局과의 사이에檢討가 進捗되어잇다

百貨店의 自制協調 無用競爭除去

總督府商工課에서는 百貨店의進出과 中小商業者의 協調와 時局에鑑하야 無用한競爭을 避키爲하야 來十四日午後一時부터 商工獎勵館에 各百貨店、中小商業者代表等의 會合을求하야

一、百貨店自制協定更正

二、百貨店委員會設置

三、百貨店法朝鮮內施行

四、其他中小商業者와의協調等을 協議하리라한다

朝鮮產棉花 統制料廢止

棉花統制料는 貿易調整을 目的으로한것으로 國內產棉花에賦課함은 妥當치안타는 見地에基하야 商工省及紡聯間에 朝鮮產棉花에 對한 統制料廢止가 硏究되든바 正式으로 廢止키로決定하얏다그러나 今年度는 取引中途로 急히 廢止함은 困難함으로 今年度에 限하야 從來대로 徵收하고 그金額은 이것을朝鮮內에 還元하야 棉花獎勵에 充키로 決定하얏는데 總督府에서 具體案을 硏究中이라한다

濕式選鑛 茂山鐵鑛大施設

三菱鑛業茂山鐵鑛에서는 昨春來一個年計畫으로 選鑛方法에 對하야 濕式乾式兩者를 試驗中에 잇섯스나 濕式選鑛이 適當한것이 明白하게되엇스므로 드듸여 昭和十六年製鐵二百萬톤을目標로 設備를急히 하게되여 本年末까지에는 原鑛二百萬톤으로부터 百萬톤을製鑛하게되엿다 또이에伴하야 日鐵淸津精練所에서도 十六年度까지 精練設備를 擴張할 模樣으로 實現하는날에는 總督府의 鐵增產五個年計畫에 急速한發展을 示하게되엿다한다

西電未拂込徵收

西鮮合同電氣에서는 平壤府電買收에 依하야 資本金을 三百五十萬圓增資하고 公稱資本額一千

北朝鮮電氣三社 合倂協定成立

廿一日總會·五月實現

遞信局에서는 西鮮電氣合同과 南鮮電氣合同을 完成시킨 뒤에 咸北地方의 配電事業의 合同도 慫慂中이든바 드듸여 朝鮮電氣(淸津 羅南 城津을 主要事業地로함)와 會寧電氣(會寧을 主要事業地로함)及 雄基電氣(雄基 羅津을 主要事業地로함)의 三社間에 議論이되야 지난一月下旬에 三社社長이 會同한結果 三社가合倂하기로 協定하고 假契約을 調印하게되야 來二十一日에 各社가 株主總會를열고 어떠顧書를附議可決하야 來五月一日에 合倂할豫定이라한다

그리하야 朝鮮의 配電統制도 到達하게된 세음이며 또咸北地方의電氣事業도 이機會에 一層飛躍하게될것으로 豫想된다한다 資本金의 割當은 朝鮮電氣十割 會寧電氣十割 雄基電氣八割五分으로 內定하엿고 重役割當은 朝鮮電氣七名 會寧電氣四名 雄基電氣二名으로 內定되여잇다한다 本社所在와 社長은 아직알수업스나 本社는 淸津에두게되지안흘가한다 그러고 各社의 事業開始年月과 資本金과 電燈數其他狀況을 보면 다음과갓다

◆朝鮮電氣는 大正元年八月에 開始하엿스며 公稱資本金은 五百二十萬圓이고 拂込資本金은 三百二十五萬圓이며 固定資產은 二百五十四萬圓이다 電燈數는 七萬三千個이고 供給區域은 府一 邑二 面二十三個所이다 社長은 川畑酒藏氏이며 本社所在地는 淸津府이고 最近의配當率은 年一割이다

◆會寧電氣는 大正八年八月에 事業을 開始하엿스며 公稱資本金은 百五十萬圓이고 拂込資本金은 七十五萬圓이며 固定資產은 百四萬圓이다 電燈數는 一萬五千이며 供給區域은 邑一 面十三個所이다 社長은 小倉武之助氏이며 本社所在地는 會寧邑이고 最近의配當率은 年一割이다

◆雄基電氣는 大正十三年七月에 事業을 開始하엿스며 公稱資本金은 百萬圓이고 拂込資本金은 六十二萬五千圓이며 固定資產은 九十萬圓이다 電燈數는 二萬五千個이며 供給區域은 邑一 面十三個所이다 社長은 野口遵氏이며 本社所在地는 雄基邑이고 最近의配當率은 年八分이다

以上三社의 公稱資本金의 合計는 七百七十萬圓 拂込資本金의 合計는 四百六十二萬五千圓 固定資產의 合計는 四百四十八萬圓 電燈數의合計는 十一萬三千個이다

火力發電機 朝鮮엔無用

北支로移駐함이賢明

小倉武之助氏談

『南鮮合同電氣』의 北支進出計畫에 關聯하야 朝鮮에잇서서電力統制後의 過剩火力發電設備를 大大的으로 北支에移駐하야 北支產業開發의 先驅가 되게하라는論議가 提唱되여 總督府當局의善處가 要望되어잇다 即

一、朝鮮의配電統制는 西、中、南部朝鮮及咸南、咸北(本年調印成立)의成立에依하야 從前의火力發電設備는 無用되어 現在豫備發電이되여잇다

一、그러데 電力需要의 增大에依하야 小規模의 豫備發電에서는 將來에充分할수업고 單只當面의 豫備만으로서 將來的으로는 無用케된다

一、一方北支의 電力開發은 急務이지만 發電機의 內地注文은 적어도 一年半을 要하고 能力不足의 重工業을壓迫한다

一、北支의急에應하야 朝鮮內의 不要發電機의 利用은 鮮滿兩全의道이다

南鮮合同電氣社長 小倉武之助氏는 北支로부터 歸任하야 問題의 北支進出에對하야 다음과가티 말한다

北支鐵道顧問의 途上電力問題에對하야 各方面과 協議를進行식힌것은 事實인데 發表할時機에는 아직達하엿다고 할수업다 朝鮮의 電力統制에依하야 생기는過剩火力 發電設備와 開發의 急에迫切한 北支의現狀을 結付하야 正當하다고생각하는方面에 努力하고잇는것이다 北支의經濟開發의 國策도잇서서 아직具體的으로말할수는업다 云云

會社現勢躍進

五千百八十社(本店會社) 公稱資本十四億八千萬圓 拂込九億三千萬圓

京城商議調査=一月末現在 朝鮮內에 本社를 가진 會社數는 五千百八十社 公稱資本金十四億八千五百五十四萬七千圓 拂込資本金九億三千四百三十三千圓으로 이것을 前月末에 比하면 社數는 九社、公稱資本金은 三百五十二萬六千圓의 增加이다 그內容은 如左하다(單位千圓)

社數 公稱資本 拂込資本

建築界閑散 材料高、資調로

朝鮮內의 土木界는 鐵道工事其他로 景氣를 謳歌하는 一方建築界는 材料高가 現著手工事에大脅威가되고 資金調整法과 鐵鋼의 使用制限의 影響을受하야 新規工事의 大口는 皆無狀態이다 大體本年上期中에는 繼續中의 工事도一段落될것으로 上期以降의建築界의 形勢는注目된다

一月中對內地 貿易激增

一月中 對內地貿易額은 如左하야 移出入이 모다 昨年同期에 比하야 激增되엇다(單位圓)

	本年	前年比
移出	[illegible]	增
移入	[illegible]	增
計	[illegible]	增
出超	[illegible]	增

品別增減內容

即前年同期에比하야 移出二千八十九萬八千圓 移入八百十九萬三千圓의 激增인데 移出入의 重要品은 如左하다(單位千圓)

	品名	本年	前年比增減
移出	米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繰棉	[illegible]	[illegible]
	生絲	[illegible]	[illegible]
	含金銀粗銅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移入	綿織物	[illegible]	[illegible]
	毛織物	[illegible]	[illegible]
	人絹織物	[illegible]	[illegible]
	洋紙	[illegible]	[illegible]
	機械類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上海와青島로 貿易協會進出

朝鮮貿易協會에서는 事變後北支에進出되야 朝鮮產品의 販路開拓에 努力中인데 現在北支는天津에出張所를 가지고잇스나 上海를中心으로한 對中支貿易을促進키爲하야 또山東方面에의 輸出貿易을 開設키爲하야 上海와青島에 出張所를 設置키로되어 工藤理事는 十日頃長崎經由로上海에出張하야 開設準備를하고 歸途海路로 青島에갓다가 歸任할豫定이라한다

北支向船會社計畫

朝鮮과北支航路擴充을爲한 汽船會社新設計畫은 其後朝鮮과北支에限定할가? 이에對內地貿易을加하야 三角航路로할가가 硏究對象이되여잇는데 諸般情勢를綜合하면

一、小型船에依하야 朝鮮、滿洲、北支에限定함

一、따라서 阿波共同 朝郵를中心으로 資本金五百萬圓程度의 것

一、其營業方針에는 貿易振興會社的色彩를加味함

等大體決定된模樣으로 不遠 遞信局朝郵阿波共同과協議、三井關係를 加하야 具體案을 考案키로 되엇다한다

經濟界消息

○產金資金會第一回委員會=先般設立된 產金資金會에서는 九日午後一時부터 殖產局長室에서 第一回委員會를開催하고 產金資金貸付審査를 行키로되엿는데 申込은二十件 最高三百萬圓 最低三十萬圓이오 總額一千六百萬圓이라고

○山本實雄氏產協理事就任=前京畿道農務課長山本實雄氏는 今回 朝鮮產業協會專務理事로서 就任키로決定

○營林署長會議=林政課에서는 來二十一日부터 五日間總督府에서全鮮營林署長會議를 開催하고 來年度事業計畫에 對하야 協議를行하게되엿는데 營林署側出席者는 十四名이라고

○南電營業部長會議=南鮮合同電氣에서는 七、八兩日 京城本社에서 營業部長會議를開催하고 事務上協議를 行하리라고

○順川尿素工場發電所는价川으로=朝鮮化學의 尿素石膏工場은 順川에 設置키로 決定하고 土地買收其他準備를 進行하고잇는데 工場은 順川에 置하드래도 發電所는 价川에設置케될것이라고

今日財界(七日)

◆米(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三一、九一	二錢高
大阪期米先限	三四、五一	一〇錢高
仁三等米一石	三一、三〇	不變
京城白米百키로(一等)	三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九錢三厘

◆株(單位十錢)

	今日終止	比前日
朝新	—	—
東新	一六六、四	六錢高
鐘紡	二八〇、四	一〇錢高

◆商品(先限單位錢)

	今日終止	比前日
大阪三品 綿絲	三六八、〇	一〇錢高
砂糖	一二、九七	九錢高

鐘紡株採算價

鐘紡도 三倍增資는 어미업다 二百九十四圓으로 出盡되고 이以上은 特殊材料가 잇서야할것이니 기운을쓸수업다고 弱氣는 輕解하고잇다

鐘紡三倍增資一割八分(舊株一割)新株二株配定으로서 株價의 採算을보면

利廻	權利落舊株價	新株權利(舊의六拂)	現在市勢
六分	三〇〇圓	三三〇圓	三七〇圓
五·五分	二七三圓	二五〇圓	二八〇圓
五分	二四〇圓	二五六圓	二五六圓
四·五分	二八九圓	一六〇圓	二五五圓
平均	一七〇圓	一四四圓	三一四圓

이되어 三百圓以上의것으로 推定된다 新株權利를 七掛까지보면 二十圓以上의 上値이나 配當을 將來一割五分으로보면 相當히 割引해야할것이다

今後渡米無難

非常時局의米價이라 農家又는 中間持米側의方針은 絕對低價에賣應치안홀것으로 深入落을期待키難한것은 事實이오 또軟派에서도 追擊賣를할수업스나 그러나 渡米의賣方으로는 渡米不足의憂慮가 毫無하다하야 어데까지버티고잇는狀態이다 第一條件은 政府米賣上의漏落米가 百萬石이나되어 民間에散在한만큼 結局處分되고야말것이오 又比價에는 持米側의賣放한다하더라도 利潤이된다는條件이오또는短期貯藏이 解除되는때는產地의出廻가 稍漸旺盛할것을足히알수잇다는것이다 그럼으로 今後渡米는無難할것이오 從하야 當限戰의最後一幕은 반드시反落될것을 足히豫期할수잇다 今後果如何?

料가發見되기前에는 어데로分散될것이라고 罰키難하나 一昨日의 商勢는 殘分軟味를助長하더니今朝에入하야는 反히强保味를添하고잇다 그러나 어러타할만한强材가업고 다만日本內地米買上에對照한納入米의蒐集으로 期正의頑强을示하는모양이다 그럼으로此納入米를完了하기까지는 强腰勢를逸치안흘것갓고 完了한後에는 强腰하엿든 그形勢가漸次弛緩할것이며 從하야그동안日本米價에追從하엿든 朝鮮米는 買上의漏落米의處分과 不遠한 將來에 解決될短期貯藏과 相俟하야 어느程度까지의 瓦落을免치못할것갓다 何如間此邊의騰勢는 繼續하기가難할것갓고 어느時期까지 强保合을 示하다가 春間의一落이나잇지안흘가한 商談이多하다

仁川弱含

朝地正租依然頑强을傳하면서 漸次出廻하야 市中滿庫이오 阪地는低價持의市價低로疏通不善 金融賣散關係로所持도賣拔하고待機中인이때 今朝各地期米가 一齊上放하야 市勢前價同價이나 品質如何로는十錢低도잇스며 實米가업는것을 如實히 示現하고잇다 銀坊主三等三一、三〇 四等三一、一〇 銀坊主三等三一、四〇 四等三一、二〇 多摩錦三等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一等白米㊀三二、八〇 ㊁三二、七〇

釜山頑强

內地入荏로 擴面明朗化를告하는데 朝來各地淸算의 一齊堅調로 人氣가조희市勢도十錢高로 成强하다 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三二、八五

大邱保合

期米好調이나 朝鮮內在米가 山積되고 內地賣行絕望視로 一般買氣가 不昂하야 休日後이면서도 必需買散見으로 市勢는 閑沈의 推移이다 ㉑殿良三等三一、六〇 四等三一、四〇 一等白米 三二、五五

群山不勢

오래동안 冬眠狀態의 市勢는 漸次 奧地의頑强 平均賣에 逆으로 滿庫에가갑게 廻米되여 一般的으로 高價는 傍觀態度이고 今朝 各地期米의 意外의上放을보아 好機라는 賣出에 市勢는 도리혀五錢低라는 逆行市勢를 演하엿다 ◎銀坊主三等 三一、三五 四等 三一、一五 一等白米 三三、〇〇

木浦不味

春眠中의市中은 各地期米는 俄然上放이지만 依然코 在米滿庫로昂高되면 賣拔의賣出로場面不味이고 奧地도强調豪傳通知이로 平均賣繼續하고 內地는오히려朝鮮內出廻待의 狀態로買付치안코 休日後이면서 도市勢는 前價와갓고 氣味不良어엇다 ㊂銀坊主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三二、三〇

今日의市勢(七日)

株式 採合後에上進

前場採合

休日을지난 今前場은 鐘紡이 二百七十九圓三十錢에 一圓七十錢低寄後 結局 前週末同價인 二百八十一圓丁에 反彈大引된것을비롯하야 東新은 百六十六圓臺의 採合이고 朝取九十五圓丁 朝新三十七圓丁 大新九十三圓丁 滿重八十八圓丁 各一本의 閑散이엇다

後場鐘新高

後場은 鐘紡이 二百七十九圓三十錢에再落、東新百六十六圓十錢、大新九十二圓五十錢、滿重八十七圓七十錢、朝新三十七圓丁에 寄付된後 鐘紡이 二百八十四圓臺로 急騰되고 好勢裡大引

依然採合商情

廣東內訌은 蔣介石政權의自壞作用으로되고 地中海風雲險惡을 買材料삼어 週末反發狀인 市勢는 休日을지난今前場은 英米의 限外建艦通報要請으로 國際關係가 重視되는等으로 警戒氣分이 다시나서 鐘紡二百八十圓再割、東新百六十六圓臺採合이엇섯고 新動機待이엇다

東新分岐在近

東京東新短期는 一月十七日政府의 對支重大聲明에 依한長期戰의 嫌氣投로 百七十二圓臺부터 六十二圓臺로 十日間에 約十圓餘가 내려서 爾來議會警戒人氣로一進一退하야 百六十五圓을中心으로 上下三圓幅의 保合이엇는데 對蘇關係의憂慮로 再次 六十二圓八十錢에 떠러저 廿六日의 低價二圓五十錢에 接近하엿다가 六圓臺에서 採合이다 即約半個月保合의 往來市勢를 反復하야 最後라고할時場買方의 投出로 即한것이二圓臺이다 此間電力案과 進展展望과 國家總動員法案의警戒로 人氣는大體下賣成이나 大體目前의 玉은 方이모다 相當히 整理되엿고 步調도나 日數도나 鍛鍊이 相當히 되엿슨즉 轉換이 再近한것으로 보이기도한다

無市勢論根據

國策關係株中心으로는 投資時代가더 續續되겟스나、東新은增資增配期待가 업슬뿐아니라 和平市勢로 擴込엇스니 妙味가

期米 保合圈內 匍匐

前場少强

一休今朝는 阪地先限三十四圓四十七錢인五丁高를據하고 當은二圓五十五錢인三丁高 中은二圓六十九錢인 二丁高로 先限은三十一圓八十九錢인 亦二丁高로 場을始作한後 阪地四十八九錢間採合에따라 當地도二節九十五錢을高價로하고 九十一錢에伸悩이고 阪止五十錢이나 當止는九十一錢이엇다

後場不動

後場은三十一圓九十一錢에 同價始場後 四節까지不動이고 五節九十錢이엇다

騰勢亦期待難

新甫發會後 限仁共히二十丁內外의保合으로 어떠한 特殊한材料가 나오지안코는

市場六感

(株)……市勢는 依然한保合▲弱氣와의 繁殊하야 前途는興味百%▲鐘紡增資難色이라는것도 根據잇는말이아니오 增資를안드래도 鐘紡은 價位가 適高한것이아니니 資助하면 買場이될것▲東新은 政局과 長期抗戰으로 重壓되나 近日强調는 注目되며 徐州會戰으로 戰勝氣分擬한도 可期▲하면더 餘儀的下押이잇을지모르나 그것이잇스면 도리어 그것이動機가되어 上放할지도모르는일

(米)……新甫發會後 一週日이되엿스되 市勢의變動은 不過二十丁內外 冬眠? 春眠?▲買上의納入米가 아직完了하기前에는 此邊에서 强保味를添할것은 市勢의自然이라할수잇스나 納入을完了한後에 어느程度까지의 反落을免치못할모양▲仕手數으로는말할지라도 地場의賣買成하는 關係로 어떠한時期에入하야 一落을見하기가 十常八、九▲何如間大勢는 一段低落을 告하기外에는 本格的昂騰을 期待키難할모양(山)

國債 傍觀人氣 不變

【東京電話同盟】國債傍觀人氣로 長期는 거의無賣買同樣變化업고 實物도 五分利의것이 五錢以上이 高하엿을뿐이다 外貨債는 佛貨가 五錢高 小商이고 米貨債는前日來의 下支模樣인 機先을受하야 大分半、五分半모다 三十錢이 高騰하엿다

正米 定期逆行 弱含

京城伸悩 白米에對한 內地로부터의 注文으로 너무好感이엇는데 市中은 各地期米의 上放에 剩載되여 氣配가 上向되엇스나 高價持의賣物이 相當하야 前價同樣으로 伸悩하고잇다

朝取期米取調內容

◆賣方 ◆買方

海外經濟(五日)

銀行券(五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金利

◆東京金利

鋼油粕·麥粉

◆阪神鋼粕 ◆阪神鋼油 ◆日本麥粉市勢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對外爲替

◆金買入價

正米

◆京城正米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正租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株式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實定代引日步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期米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生絲

◆橫濱生絲

人絹

◆各地人絹

棉花

◆大阪棉花

綿絲

◆大阪綿絲

日本各地地米

京城物價(七日)

◆白米(斗、單位錢) ◆肥料 ◆紙物(單位錢) ◆燃料(單位錢) ◆京城消費組合協定價 ◆洋灰 ◆砂糖 ◆海產物 ◆染料 ◆木材 ◆本絹疋 ◆人絹疋 ◆毛絲 ◆牛皮

朝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

株式 期米 柳來恒取引店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 六一九 五一一 三九六

朝取證券米豆取引員 株米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業內進呈 吉村榮左工門商店